

# 건축문화 **시공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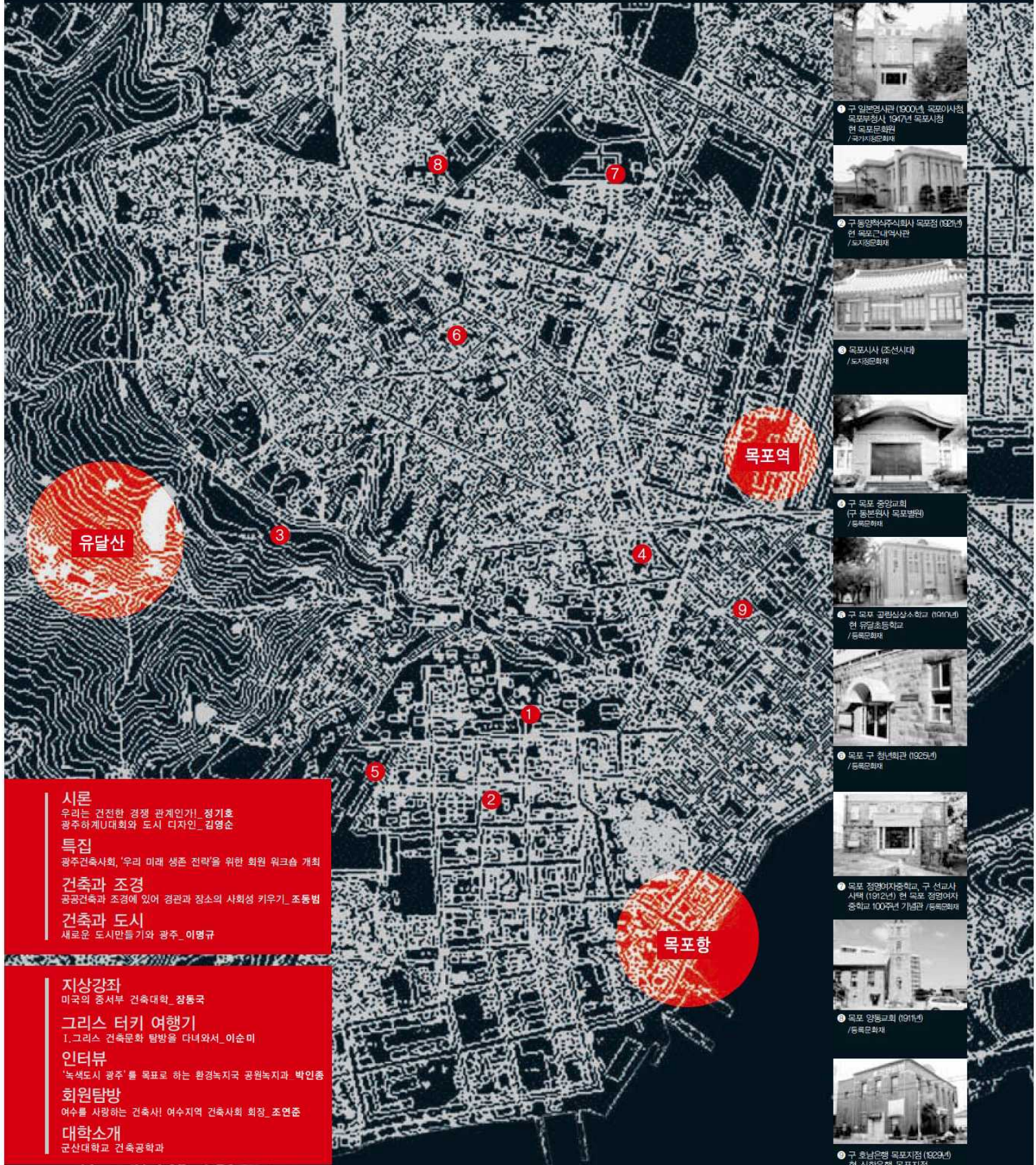
Vol.007 10. Jun 2010  
http://gjkira.kira.or.kr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

광주 · 전남 · 전북 건축사회 News 2010.06

007호

GWANGJU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694-10 T 062.521.0025 F 528.0026



유달산

목포역

목포항

## 시론

우리는 진정한 경쟁 관계인가! 정기호  
광주하계U대회와 도시 디자인\_김영순

## 특집

광주건축사회, '우리 미래 생존 전략'을 위한 회원 워크숍 개최

## 건축과 조경

공공건축과 조경에 있어 경관과 장소의 사회성 키우기\_조통범

## 건축과 도시

새로운 도시안들기와 광주\_이영규

## 지상강좌

미국의 중서부 건축대학\_정동국

## 그리스 터키 여행기

I, 그리스 건축문화 탐방을 다녀와서\_이순미

## 인터뷰

'녹색도시 광주'를 목표로 하는 환경녹지국 공원녹지과 박인중

## 회원탐방

여수를 사랑하는 건축사! 여수지역 건축사회 회장\_조연준

## 대학소개

군산대학교 건축공학과



1 구 인봉병원 (1900년) 목포이사청  
목포부청시 1977년 목포시청  
현 목포문화원  
/ 국가재정문화재



2 구 동명형식주식회사 목포점 (1921년)  
현 목포군 대역사관  
/ 국가재정문화재



3 목포시사 (조선시대)  
/ 도시문화재



4 구 목포 중앙교회  
(구 흥분원사 목포병원)  
/ 등록문화재



5 구 목포 광명식상소학교 (1910년)  
현 유달초등학교  
/ 등록문화재



6 목포 구 청년회관 (1925년)  
/ 등록문화재



7 목포 정명여자중학교, 구 선교사  
사택 (1912년) 현 목포 정명여자  
중학교 100주년 기념관 / 등록문화재



8 목포 양동교회 (1911년)  
/ 등록문화재



9 구 훈남은행 목포지점 (1929년)  
현 신한은행 목포지점  
/ 등록문화재



## 우리는 건전한 경쟁 관계인가!



정기호 건축사  
가산 건축사사무소(전남)

올 5월 들어서는 맑은 햇살이 창에 비치는 날이 얼마되지 않고 계속 날이 흐리든지, 비가 오든지 하여 안 그래도 어려운 우리 건축사들의 마음을 무겁게 한다.

특히 이제 사무소를 시작하신 후배들 중 상당수는 건축사 합격증을 받을 때 들뜬 기분과 의욕은 현실의 벽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희미하게 바래졌다.

그중에 몇몇 분들은 그동안 배우고 익힌 본인의 의지대로 만든 설계안을 설계경기에 출품하고 평가받길 원하지만, 현실이 그리 녹록하지 못하다 보니 어차피 해도 되지 않을 것이라 여기며 자신의 능력을 사장시키고 만다.

신진 건축사들의 시장진입을 막고 있는 것으로 PQ제도와 BTL사업을 들 수 있는데, 이는 갓 건축사가 된 경우에는 참여에 필요한 조건을 갖춘다는 것이 거의 실현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현상설계에서도 진입을 억제하는 제약 조건은 종종 볼 수 있다.

PQ제도와 BTL사업 등은 법과 제도가 변해야 가능하지만, 현상설계경기의 경우는 법과 제도보다 이를 현실적으로 운용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법적 효력이 있는 '건축설계경기운영지침'과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설계경기지침서'를 살펴보면 분명한 차이를 알 수 있다.

'건축설계경기운영지침 제15조 ②항에는 '심사의 과정 및 결과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데 반해, 대부분의 '설계경기지침서'에는 '심사결과에 대해 응모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라고 기재되어 있고, 심지어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방법, 심사 후 발표된 당선작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서약서를 써야하는 경우도 있다.

위와 같이 '건축설계경기운영지침'에 명시된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발주처는 '지침서' 및 '서약서'를 통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 말은 '공정하며 합리적으로 심사했으니 심사결과를 무조건 승복해야 한다'는 것으로 매우 강압적인 표현이다. 그러나 출품자들은 건축에 대한 자신의 열정과 애착을 표현한 작품이 왜 당선작에서 배제가 되었는지, 또한 당선작은 어떠한 이유로 선정이 되었는지 알고 싶어 한다. 그뿐만 아니라 아직 항간에 떠도는 확인되지 않는 의혹 출품자와 심사위원들과 밀착관계 등을 불식시키고, 결과에 대한 합리적인 믿음을 주기 위해서는 심사과정 및 결과의 공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심사위원이 양심과 소신을 가지고 공정하게 평가했다면 그 과정과 결과를 무기명인 아닌 기명으로 당연히 밝히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렇게 점수를 발표한다면 출품자들은 그 결과에 승복하는 것은 물론이고 재도약을 위한 계기도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 협회도 현상설계의 출품작을 소개하는 수준보다는 그 선정과정까지 세세하게 설명함으로써 보다 투명한 현상설계경기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미 만들어진 '건축설계경기운영지침'의 심사방법이 올바르게 지켜져서 열과 성을 다한 작품이 제대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풍토가 조성되도록 협회와 기성건축사가 나서야 할 시점이다. 모든 건축사들의 자긍심을 위하여!

## 광주하계U대회와 도시 디자인



김영순  
광주시U대회지원관실 기획홍보담당

지난 5월 21일 2015광주하계U대회 유치 1주년 행사가 조촐하면서도 의미있게 치러졌다. 이제 5년 남았다. 광주 역사상 가장 많은 2만 5천여 명의 외국인인 광주를 방문하게 될 2015광주하계U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지난 해 말, 2015광주하계U대회 지원특별법이 제정됐고 이 법에 근거해 지난 1월 특수법인인 조직위원회가 출범돼 대회 준비에 필요한 제도적 틀이 갖춰졌다.

올해 2015광주하계U대회 종합계획과 세부적인 실행계획, 그리고 경기장 시설계획을 수립하는 동시에 외국어 소통이 가능한 자원봉사자 확보의 기틀을 다져야 한다. 또한 국제수준에 걸맞는 경기장 신축과 보강을 통해 U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오는 2015년까지 2만여 명의 외국어 가능한 자원봉사자 확보를 위해 지난 3월 '시민영어스쿨'이 개설됐다. 또한 2015년에 대학생이 될 중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 영어학교와 글로벌리더과정을 진행 중에 있다. 매년 영어스쿨 운영을 통해 2015년까지 2만여 명을 확보할 예정이며 이들은 2015년 광주를 방문하게 될 외국인들에게 광주를 제대로 알려주고 보여줄 친선대사로 활동하게 된다.

2015광주하계U대회 유치 준비과정에서 행했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분석에 의하면 U대회 개최로 인해 9천 5백억 원의 경제효과, 1만 5천여 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U대회가 광주에 미치게 될 성과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은 도시 경쟁력의 시대다. 세계 각국의 도시들이 생존경쟁에 돌입했다. 과거 국가간 경쟁은 글로벌 경제체제에서 도시간 경쟁구도로 바뀌었고 살아남기 위한 각축전은 실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정보화와 세계화의 물결로 국경이 무의미해진 단일시장 경제 체제하에서 각 도시들은 더 많은 기업과 투자,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세계를 상대로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이른바 국가 브랜드에서 도시 브랜드로 전환된 것이다.

2015광주하계U대회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줄 것으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아직까지 한번도 국제스포츠행사를 치러본 적 없는 광주가 올림픽에 버금가는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유치함으로써 글로벌 도시로 가는 발판을 다질 수 있게 됐다.

2015광주하계U대회는 U대회 역사상 가장 큰 규모로 치러질 전망이다. 스포츠 경기만 해서 17개 종목 1만 3천여 명의 선수와 임원진이 광주를 찾게되며 4년마다 돌아오는, FISU집행위원을 뽑는 총회가 열려 세계 각국의 스포츠계 명망있는 인사들이 광주에 오게 된다. 더불어 같은 기간 세계 총학장 회의가 개최돼 세계 각국의 대학 총학장과 대학 관계자들이 참석해 이들 모두를 합하면 무려 2만 5천여 명의 외국인이 한꺼번에 광주를 방문한다.

광주의 도시브랜드 가치를 드높일 절호의 기회가 아닐 수 없다. 광주는 이때를 놓쳐선 안된다. 이를 위해선 단순히 경기장 시설과 대회 운영에 대한 것만 준비해선 불충분하다. 세계에 내보일 광주를 효과적으로 어필할 전략적인 작전이 필요하다. 도시의 안팎 환경을 글로벌 도시의 수준에 뒤떨어지지 않게 조성하는 것이 급선무다. 외국인들이 광주라는 도시에 호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시 이미지를 창출해내야 한다. 그들이 광주의 곳곳에서 광주다운움을 느끼도록 해야 한다. 워킹 투어리즘의 코스를 빨리 개발해야 하며, 공원과 녹지 조성도 서둘러야 한다. 그러자면 5년은 짧고 해야 할 일은 많다.



GS건설이 만드는 최고급 브랜드 고품격 아파트 자이

# 상무자이

# 파격할인분양

분양문의

44형, 53형, 54형, 61형, 78형

분양사무소 062)385-8501





# 광주건축사회, '우리 미래 생존 전략' 을 위한 회원 워크숍 개최

- 신정철 회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결집하여 광주건축사회의 새로운 미래를 열자"고 강조  
- 미래 생존 전략을 위한 초청강연 및 주제발표, 토론회 등 심도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돼



광주건축사회는 6월 4일, 5일 양일간 전남 신안군 중도 옐도라도 리조트에서 건축사의 윤리의식 제고 및 건축사사무

소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우리 미래 생존 전략'을 위한 회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광주광역시건축사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워크숍은 광주건축사회 회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건축사 신용협동조합과 연금관리회가 주최하였으며, 서울대학교 송병락 명예교수의 초청강연과 광주건축사회 심상봉 부회장과 대한건축사협회 이창을 부회장의 주제발표 그리고 분임토의 등의 프로그램에 따라 심도 있게 진행됐다.

## 그룹화를 위한 세부 추진전략 발표

심상봉\_광주건축사회 부회장



광주건축사회 심상봉 부회장은 1년 가까이 진행된 '건축사사무소 그룹화' 연구결과 발표에서 "그룹화는 설계시장의 변화에 따른 사회적·시대적 요구이지만, 단순히 경비를 절감하기 위한 그룹화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다양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업무영역을 확대해야만 그룹화의 효과를 진정으로 기대할 수 있

다"고 역설하고, 대표적인 사례로 김해의 '(주)아키텐스종합건축사사무소'를 제시하기도 했다. 그룹화 연구 T/F Team은 그룹화를 통하여 규모를 대형화하고, 업무를 전문화하며, 경영을 합리화하여야 회원 모두가 상생(相生)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에 따라 그룹화 방안과 구체적인 추진일정을 발표하고, 회원들의 참여와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광주건축사회와 광주건축사 신협에 요청하기도 했다. 그룹화에 참여하고자하는 건축사는 7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되며, 구체적인 사항은 광주건축사회에 문의하면 된다.

## 대한건축사협회 발전 2010년도 실천계획 소개

이창을\_대한건축사협회 부회장



두 번째 주제 발표에 나선 이창을 대한건축사협회 부회장은 "앞서서 발표한 그룹화와 그 맥락이 크게 다르지 않다"며, "포괄적인 측면에서 2010년도 국내외 경제전망과 대한건축사협회의 목표와 추진 전략 그리고 2010년도 실천계획을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했다. 그 중에서 그는 광주건축사회의 예산규모가 전국 최하위에 속한다는 것을 꼬집으며 회원들의 노력을 간접적으로 촉구하기도 했다.

범 국가차원에서 건축사협회가 나아가야 할 바를 설명하던 이창을 부

회장은 말미에서 광주건축사의 생존 전략에 대한 소견을 밝혔는데, '광주 다음의 건축문화 창조자'로서 정체성을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가격경쟁보다 디자인으로 경쟁하는 전문직업인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그룹화도 하나의 실천방안이 될 수 있다며, 구체적인 규모로 50인 단위의 대형화 및 전문화를 주장했다. 또한 업무영역의 개발과 확대도 '건축물생애주기관리' 등을 예로 들며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공정이 힘이다.'라고 주장하며, 생존을 위해서는 긍정적인 사고와 긍정적인 행동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과 광주건축사회의 전략적 지원 및 광주건축사 신협의 적극적인 재정지원을 제안하기도 했다.

## 디자인 자문 및 업무대행 시스템 개선



이어진 업무보고에서 광주건축사회 신정철 회장은 7월 1일부터 디자인

자문절차가 On-Line을 통해 진행된다는 점과 위법 건축물을 근절하기 위하여 업무대행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된다는 점을 설명했다. 그리고 연금관리운영규정이 일부 개정되었다는 점도 회원들에게 알렸다. 그렇게 첫 날 단체 워크숍 일정은 마무리 되었고, 저녁에는 숙소에서 '우리 미래를 위한 생존전략'이라는 주제로 분임토의 시간을 가졌다.

## - 그룹화 방안 등 회원들의 열띤 토론 이어져

분임토의 열기가 얼마나 뜨거웠는지는 다음날 그 결과보고에서 여실히 느낄 수 있었다. 일부에서는 밤 늦게까지 진행되는 바람에 토의결과를 미처 제출하지 못하기도 했고, 날이 바뀌었음에도 토의가 이어지고 있기도 했으며, 그 자리에서도 수많은 의견이 제안되기도 했다. 취합된 토의 결과 중에는 디자인자문 신청 시

납부하는 연금을 면적기준으로 전환하는 것, 협회차원에서 협력회사를 운영하자는 것, 디자인 자문 내용과 사용승인 신청 내용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자는 것 등 눈에 띄는 제안도 적지 않았고, 신정철 회장은 회원들의 뜻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실천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1박 2일 동안 열린 워크숍을 마무리하며, 광주건축사회 신정철 회장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결집하여 광주건축사회의 새로운 미래를 열자"고 강조

한 뒤, "건축사회의 발전을 위해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다짐했다.

광속군 전남기자 ksk830710@hanmail.net

## 전략의 수립과 시행의 4단계 : 파·전·시·문

송병락\_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세계경제전쟁 / 한국인의 길을 찾아라'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세계적인 경제학자인 송병락 교수는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한국인과 한국문화를 기반으로 경제전쟁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을 찾을 것을 주문했다. 송교수는 비범함과 유례를 찾기 힘든 경제성장을 예로 들어 한국인에게도 융합과 강한 성취욕이 있다고 하면서도, 반면에 선진국에 비하여 전략수립에는 약한 면모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와 같은 치열한 경제전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생존전략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이순신 장군을 우리 민족을 대표하는 독창적인 전략가라고 평가했다. 이순신 장군은 왜적의 장적인 백병전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등껍질과 창칼을 덮어쓰은 거북선을 고안해 내었으며, 포격전에 능한 우리의 장점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학익진이라는 전법을 사용함으로써 수적인 열세에서도 전승의 신화를 기록하며 임진왜란에서 국가와 민족을 지켜냈다는 것이다.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보이는 것이 결정하는 것은 비교우위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결정하는 것은 경쟁우위이다. 그런데 경쟁우위 즉, 경쟁력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전략이라고 하면서, 아무리 강한 경쟁자에게도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은 반드시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학벌·가문·용모는 비교우위일 뿐이고, 빨래·청소 등 남들이 다 하고 있는 행위는 모방일 뿐이므로 전략이 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생존의 길을 찾는 원칙으로 첫째, 항상 더 좋은 길, 즉 다른 길도 있다는 것. 둘째, 경쟁자들을 모방하기 보다는 그들의 강점을 융합하여 앞서 갈 수 있는 길을 찾는 것. 셋째, 나의 길, 내가 속한 조직의 길, 그리고 나라의 길을 아는 사람은 승자의 길을 가게 된다는 것. 넷째, 독창적인 전략을 알면 끝까지 일등을 하는 길이 있다는 것. 마지막으로 운 좋은 사람의 길은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라 **훈(魂)**으로 일하고 하늘과의 관계를 잘 하는 사람에게 찾아온다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고 했다.

송병락 교수는 이 같은 내용으로 강연회를 진행하면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파·전·시·문이라고 요약한 '전략의 수립과 시행 4단계'를 강조하였는데, 아마도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 가는 생존전략의 핵심이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송교수는 전략이란 '어떤 길을 가야 하는 가를 결정하는 것'이고, 전술이란 '어떻게 가야하는 가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며, 성공하는 사람과 기업은 반드시 성공하는 전략이 있다고 했다. 그는 "파리가 하루에 1백km를 날아갈 수 있다면 의아해 하겠지만 말 엉덩이에 붙으면 가능하다"면서 "이게 바로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훌륭한 전략가에게는 전술과 전투적 의사결정 모두 중요하지만, 한발 앞서 미래를 예측하고 경쟁자와는 다르게 '나만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 실행하는 전략적 의사결정이 우선돼야

- 첫째, 파라다임의 변화를 파악해야 한다.**
- 둘째, 이에 대응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 셋째, 전략의 실현을 위한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
- 넷째, 시스템을 최적으로 만드는 독창적 문화를 개발해야 한다.**



## 5. 공공건축과 조경에 있어 경관과 장소의 사회성 키우기

조동범 교수  
전남대학교 조경학과

1. 조경과 건축의 근원관계 (2010년 2월호에 기재)
2. 조경과 경관건축에 있어서의 랜드스케이프 (2010년 3월호에 기재)
3. 건축공간의 식재설계-제도와 공간채우기를 넘어 (2010년 4월호에 기재)
4. 건축과 조경의 틈새를 찾아라-레인가든(Rain Garden) (2010년 5월호에 기재)

한번은 광주시청사의 건축물 스케일과 디자인에 대해 어느 건축가와 사람을 나누다가 "한 도시에 이 정도의 대표되는 건축물은 있어야 지요"라는 이야기에 가만히 입을 다물고 말았다. 가볍게 지나가는 정도의 대화이기도 했지만 필자가 건축을 전공으로 하지도 않는데도 건축물의 디자인에 대한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내·외부 공간전반의 장소감을 포함해 이런 저런 정리되지 않는 느낌이 있었던 데다, 그 '이런 정도의 건축물'이 단지 시각적, 물리적 디자인의 의미였다면 달리 덧붙일 말도 없기 때문이었다. 다만 그 대표되는 건축물이 공공건축일 때는 엄격한 기준으로 요구되는 그 무엇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이미 몇 년이 지나도 입에서만 맴도는, 그하다만이 이야기의 뒷부분이었다.

### 공공건축은 도시 경관을 어떻게 대표하는가?

건축과 조경이 만들어낸 결과물은 궁극적으로 도시경관으로 귀결될 것이다. 그 도시경관은 수많은 개별 요소의 집합에 의해 결정되는 만큼 '그 도시경관이 어떤 모습일 때 바람직한 것일까?' 라는 질문은 개별 건축과 조경의 디자인에서 정답을 구하려는 것 만큼이나 어리석다. 그래도 도시계획이나 도시개발 정책 등 인위적으로 지향하는 바나 과거부터 이어져온 문화와 역사 등 공유하는 맥락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건축이나 조경이 지향하는 바가 전혀 없다는 것도 있을 수 없다. 특히 도시와의 관계 속에서 건축과 조경이 가질 수밖에 없는 공공성 추구, 문화의 형성이라는 연결고리를 감안하면 건축과 조경은 도시경관을 형성하는 요소에 그치지 않고 도시 그 자체를 만드는 주체라는 의식을, 특히 공공건축과 공공조경에 관계되는 일에서는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

공공건축은 규모나 입지, 용도를 감안하면 도시경관 속에서의 시각적인 대표성은 의도하지 않아도 어쩌면 이미 주어져 있는 것 일지도 모른다. 그런 점에서 광주 시청사에서 당시 느꼈던 정리되지 않았던 것이란 건축 자체의 시각적 디자인이라기보다는 공간에 사람의 안정적인 머무름이 보이지 않는, 사회적 장소성에 관한



언제까지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궁금한, 사회성이 부족한 광주 시청사의 시민문화광장과 최근 나무그늘로 바뀐 중앙광장

것이였다. 업무상 찾아온 민원인이 아니라 청사의 공간이 문화공간이 되고 외부공간은 공원이자 광장이 되어 시민에게 열려있는, 일상의 공간으로서의 편안함이라는 또 다른 종류의 대표성이 어찌지 부족하게 느껴졌던 것 같다.

근래 공공청사가 대형화되고 외부조경이 강조되면서 사회적으로 호화청사가 문제가 될 정도로 도시경관 속에서 어떤 장소이어야 할지는 디자인과 함께 다루어져야 할 측면이다. 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그 자체가 시민을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그건 그들의 생각이고, (나눔의 시민복지형 공간)인지 (이 정도는 갖춰놓고 살아야지 하는 체면치레의 공간)인지 들여다보면 우선은 공공 공간이 가능한 많은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여야 하는 사회적 대표성에서의 위화감이 그 호화청사 시시비비 속에 존재했던 것은 아닐까?



호화청사 시시비비 속에 정작 시공 이후 건축과 조경디자인에 대한 평가는 묻혀버린 성남시청사. 그 일부공간인 음악분수와 필로티 가든의 조망

### 개방된 공공 공간의 디자인

공공건축의 외부공간의 성격과 역할에 대해 이와 같은 개방성이나 공공성이 설계개념 단계에서부터 고려되지 않는 것도 아니다. 문제는 사회적 공간으로서가 아니라 상투적인 물적 공간개념으로서만 다루지고, 현상적인 장소성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사용해보고 결정할 문제로 막연히 미뤄둠으로써 설계의 디자인 영역이 아니라 운영과 관리의 영역으로 떠날려고 있지 않는가에 있다. 현실적으로는 설계에서 시공 이후의 이용프로그램을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설계자가 그 프로그램의 주체까지 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공간·시설 프로그램을 마련해두고 그 프로그램대로 장소가 형성되기를 기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래도 설계자가 의도한대로 예정조화론적 장소가 형성되지 않는다면...? 운영·관리 단계에서의 공간변용과 리노베이션까지도 디자인 전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흔히 비위동의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공간, 물리적 개방과 다양한 활동의 수용이라는 것에 있지만, 설계를 다 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미뤄둠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오래된 모더니즘의 이야기이지만 미스 반 데어 로에가 설계한 뉴욕의 시그림 빌딩 플라자는 도시광장 형성을 위해 도로로부터 셋백(set back)된 독자적인 공간을 마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과의 관계에서는 거의 100% 노출되어, 이 광장에서 있으면 고층건물이 압도하는 비인간적인 스케일감과 함께 일종의 광장의 고독감마저 느껴지게 된다. 이러한 극단적인 경우에서부터 예술적인 장소, 민주적인 장소, 정치적인 공공 공간에 이르기까지 공공 공간의 디자인은 극히 다양할 수밖에 없다. 디자인 보다 중요한 문제는 다양한 사람들을 위한, 다양한 시대의 - 앞으로 다가올 미래까지 포함해 - 다양한 가치를 담으려면 그 공간이 무엇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자폐의 상태이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시그림 빌딩 플라자의 광장 공공성과 개방성은 명확하지만 건물로부터 시선 차단이 전혀 없으며 그것이 공간에 있어서의 영역형성을 저해하고 있다.



최초 현상공모안과 다르게 개념이 없어진, 그러나 대중에게는 일기 쉽게 받아들여진 서울 시청광장. 민주적이지만 고도로 정치적인 공공 공간이다.



대학캠퍼스의 전면에 배치된 운동장 공간은 상투적인 공공시설로서의 배치이다. 그러나 적절한 개방감과 경관적 맥락을 활용을 통해 지역사회의 공원 역할을 하기도 한다. (개조 후의 전남대학교 운동장)

### 공공 공간의 사회성을 키우자

눈을 돌려 도시기반시설이자 공공 공간인 공원으로 화제를 바꾸어보자. 공원이란 해서 사회적 장소 형성의 문제가 없을 수는 없다. 의도대로 작용하지 못하는 공원의 공간은 많고도 넘친다.

이 연재의 첫 회에서 소개한 옴스테드의 센트럴파크는 공원을 통해 도시와 조경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자주 인용된다. 센트럴파크가 계획될 때만해도 그 부지는 도시로부터의 쓰레기가 버려지는 쓸모없는 저습지였다. 부랑자들의 소굴이기도 하였다. 주변지역 또한 지금과 같은 시기지와는 거리가 먼 모습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옴스테드의 현상공모 제출안에는 공원과 인접한 주변의 격차형 가로가 현재와 같이 촘촘하게 그려 넣을 만큼 옴스테드는 공원 주변의 시기지가 고밀도로 발달할 것을 예견하고 있었다. 당시의 도시 공원에 요구되는 자연관은 각종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고 휴일에도 갈 곳 없는 도시노동자들에게 사회복지 개념으로 제공되는 목가적 공원이자, 범죄와 공해 등 각종 도시문제에 대한 항생제로서의 것이었기에, 주변 도시와의 대비는 규모면에서도 그렇지만 도시를 만들어가는 주체로서의 위상을 의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센트럴파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주변의 초고층 건물군 아래로 거대한 녹지가 펼쳐지는 오늘날의 사진은 (지난 2월호의 이 지면을 참조) 마치 도시 일부를 들어낸 것처럼 보일 정도로 공원과 도시의 대조를 보여주는 아이코닉이다. 공원은 도시라는 주제에 대해 그 바탕(ground)을 이루는 자연공간이 아니라 거대한 도시를 바탕으로 명확한 도형(figure)으로서의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것은 시각적인 위상으로서의 도형과 배경의 관계가 아니라 사회적 장소로서의 환원에 의한 것임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센트럴파크가 한 때 뉴욕에서 가장 위험하고 방치된 녹지공간에서 오늘날과 같은 시민을 위한 축복받은 공간으로 다시 되돌려 받게 된 배경에는 민간재단인 센트럴파크 관리위원회(Central Park Conservancy)에 의한 공원의 사회성 키우기가 있었다. 기부금 모집에 의한 관리기금 조성, 자원봉사자의 직접관리 참여, 이용자 프로그램의 개최 등 사람의 손길과 관심을 모아 공원을 즐거운 사회적 장소로 변모시킨 것이다.

toch@chonnam.ac.kr

지금까지 총 5회에 걸쳐 '건축과 조경'을 연재해 주신 전남대학교 조경학과 조동범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 4. 새로운 도시만들기와 광주

## 네 번째 이야기: 외국의 사례 '싱가폴'

이명규 교수  
광주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 1. 새로운 도시 만들기와 광주 - 첫번째 이야기 (2010년 3월호에 게재)
- 2. 새로운 도시 만들기와 광주 - 두번째 이야기 (2010년 4월호에 게재)
- 3. 새로운 도시 만들기와 광주 - 세번째 이야기 (2010년 5월호에 게재)

### 아시아의 문화수도 : 싱가포르

현재 광주시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표방하고 그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싱가폴은 1989년에 벌써 아시아의 문화수도로 만들려는 정책을 발표하였으며 문화수도를 만들려는 사업들이 착각 추진되고 있다. 갈수록 치열한 도시간 경쟁에서 싱가폴은 한 발짝 앞서서 문화수도로 만들려는 노력을 1980년대 말부터 추진하였다.

1957년에 말레이시아로부터 독립하여 지리적 이점으로 경제적 번영을 이룩한 싱가폴은 경제성장만으로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없으며 후발 도시와의 경쟁에서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함을 인식하여 문화를 통해 도시를 새롭게 창조하고자 문화수도만들기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에스플라네이드(Esplanade). 2002년에 완공된 세계적 수준의 복합공연예술센터로 1,600석의 콘서트홀과 2,000석의 극장 및 다양한 부대시설로 구성되어 있다.

### 싱가폴의 역사와 도시이미지

싱가폴은 1819년 영국인 스태포드 래플즈(Thomas Stamford Raffles)가 발견한 이래 영국령 동인도회사로 있다가 말레이시아의 연방에 편입된 채 제2차 세계대전을 맞게 된다. 제2차 세계대전 후 1957년 말레이시아의 연방에서 독립하였고 1965년 리관유(Lee Kuan Yew)수상이 집권한 이후부터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시로 발전하게 된다. 리관유수상은 매우 독특한 정책으로 도시를 발전시킨 것으로 유명하다. 그래서 한때 싱가포르에서는 길거리에서 침도 빨을 수가 없고 담배도 피울 수 없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다. 또한 법규를 위반하면 태형을 받게 된다고 알려져 있었다. 이러한 이야기는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 싱가포르에서는 많은 법령들이 완화되어 적용되고 있으며 그렇게 심하게 적용되지는 않다고 한다. 하여간 이러한 엄격한 법규 때문인지 싱가포르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깨끗한 거리, 아열대의 푸른 숲, 즐비한 고층빌딩, 세련된 건축물과 다인종 국민이라는 점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도시이미지는 커다란 건축물, 푸른 숲 그리고 다양한 볼거리 등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깨끗하고, 걷기 편하고, 안정되고 질서 정연한 거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한 모델이 싱가포르가 아닌가 한다.

### 싱가폴의 도시발전단계

제1단계인 경제개발 시기에 말레이시아에서 독립한 싱가폴은 동남아시아의 물류거점도시로서의 이점을 활용하여 경제적으로 눈부신 성장을 하게 된다. 싱가폴은 네덜란드의 로테르담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번창한 항구로 발전하였으며, 연 1,000억 달러 이상의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고, 세계 4위의 금융중심



MITA의 1층 갤러리 전시실로 구 경찰청 건물을 활용하여 1층은 화랑과 전시실로 이용하고 있다.

지이며 초일류 대기업들의 아시아 지역본부가 가장 많이 위치하고 있는 도시이며 연 7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국제도시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부상과 일본과 한국 등 동아시아의 급격한 발전으로 경제적 위상이 약화될 가능성이 보이고 다른 한편 주변나라들의 발전으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제2단계인 문화수도 시기로 싱가폴은 1989년에 아시아의 문화수도를 만들겠다는 정책을 발표하고 두리안이라는 열대과일을 연상하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큰 Esplanade이라는 복합예술센터의 건립, 문화정보부인 MITA(Ministry of Information, Communication and the Arts)의 탄생, 국립문화유산위원회와 국립예술위원회 설립 등 다양한 문화사업을 펼치게 된다.

제3단계는 창조도시의 시기로 싱가폴을 명실공히 국제적인 창조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과거에는 생각할 수도 없었던 동성애자 페스티벌을 2004년부터 개최하였으며 2006년에는 국제비엔날레와 국제마라톤대회 및 국제음식박람회를 비롯한 크고 작은 많은 국제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더욱이 싱가폴은 카지노를 포함한 세계최대규모의 통합리조트를 바닷가에 건설하는 등 새로운 도시발전의 동력을 찾기위해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 도시공간개발의 주역 : 도시재개발청(URA: The Urban Redevelopment Authority)

싱가폴을 한 번이라도 방문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싱가포르 도시가 물리적으로 질서정연하고 건축물들이 아름답고 체계적으로 만들어지게 된 배경에는 무엇보다 공간만을 전담하여 운영관리하는 도시재개발청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도시재개발청은 도시공간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일반행정부서와 별도로 운영되



도시재개발청내 1층 전시실에서 전시하고 있는 싱가포르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개발의 모형



싱가폴 도시재개발청 내 지구단위계획의 도면으로 누구나 볼 수 있고 필요하다면 인쇄할 수 있다.



국제현상설계에서 당선된 주택단지모형 (Duxton Public Housing)



마리나 베이 샌즈 통합 리조트((Marina Bay Sands Integrated Resort). 57층 호텔로 구성되어 있으며 육상은 축구장 2배 크기의 규모

고 있다. 도시재개발청은 싱가포르의 공간정책을 장기 계획에서부터 일반규제에까지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으며 특히 관광지 및 야간경관, 문화재보존 등을 포함한 다양한 사업들을 취급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공간개발에 대해서는 법정부서와 위원회의 운영 그리고 행정부서의 인허가로 관리되는데 비해 싱가폴은 행정의 확고한 장기비전, 구체적인 도시발전모형과 투명한 설계지침, 현상공모를 통한 설계중심으로 관리되고 있다. 광주시도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계기로 새로운 창조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존 시스템을 바꾸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운영하고 관리할 싱가포르의 도시재개발청과 같은 기구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다음호에 계속됩니다.)

jm7192@paran.com

## 한일지도판매(주)

한일지도판매(주) ☎ (062)524-3059, (062)529-1409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동 477-2 운암주유소 뒤

### 관리지역 세분화 신판지도 출시!!

이번에 새로 나온 책은 정부에서 시행한 시·군·전지역·관리지역 세분화 수록

### 특보 2010년 최신 광주광역시 지번도책 판매 중!

### 이번에 새로 나온 신판 지도책은 전품목 30% 세일

★최신 광주, 장성, 담양, 곡성, 화순, 나주, 함평 지번도책★

목포·무안·영암·신안군 4개 지역을 1권으로 관리지역 세분화 되어나와 판매중입니다.

상담문의 ☎ (062)524-3059, 529-1409



# 미국의 중서부 건축대학

장동국 교수  
조선대학교 건축학부

2010년 6월 1일로 조선대학교에서 근무한지 만10년이 되는 장동국 교수는 2009년 미국 미시건대학에 교환교수로 체류하면서 경험했던 것을 바탕으로 강연회를 하였다.

강연회에서는 미국의 8개 대학의 특성 및 미 대학 북서부를 횡단하며 답사하였던 도시와 대표적인 건축물에 대해서도 소개(이 글에서는 미국의 중서부 8개 대학에 대해서만 소개함)하였다. 이 강연회는 자진해서 요청한 장동국 교수는 "이러한 자리가 1회성으로 끝나기 보다는 정기적인 건축 문화행사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며 '이 지역 학자들과 건축인들에게는 정보 교류의 장'으로, '학생과 일반 시민들에게는 건축문화를 이해하고 동참하는 계기로 발전시켜 나가자고 역설했다.



미네소타 건축대학 중정 홀

## 미국의 문화 체험

미국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자연환경과 4개의 시간대를 사용하고 있는 광활한 대륙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미국의 가장 작은 주보다도 작은 남에서 태어나고 자란 나의 공간스케일로는 사우스다코타와 아이오와로 이어지는 대평원은 광활한 대륙의 힘을 느끼기에 충분하였다.

문화는 사회적 결과물이며 사회적 의지의 표상이다. 사회는 문화를 만들지만 문화는 사회를 지탱하는 원동력이다. 지구상 어디에도 완벽한 사회는 없다. 그러기에 문화는 다양할 수밖에 없으며 그 나름대로 비교될 수 없는 의미를 표현할 뿐이다. 미국의 문화는 청년기의 힘찬 에너지를 분출하면서 세계 건축이 실험되고 포용되는 용광로로서 어떠한 형틀에 의해 어떤 결과물이 만들어질지 주목할 때라고 생각된다.

## 미국의 중서부 건축대학 답사

미국의 건축교육은 미국의 3대 대통령으로서 독립헌장을 작성한 토마스 제퍼슨(1743-1826)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는 버지니아 대학을 설계한 미국 대통령으로서 유일한 건축가로도 알려져 있다. 1814년 버지니아 대학에 건축과를 개설하려 했지만 실패한 이후 미국내 대학에서 건축교육이 공식적으로 시작된 곳은 매사추세츠 공과대학(MIT)으로 1865년의 일이었다. 이후 코넬대학에서 1871년 건축교육이 시작된 이후 많은 대학들에 건축과가 개설되기 시작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발발 직전 독일의 나치 위협을 피해 미국으로 망명한 월터 그로피우스와 미스 반 데어 로에에 의해 미국의 건축교육은 예술과 공예 그리고 기술과 과학의 통합을 추구하여 발전하게 된다. 월터 그로피우스는 1936년 하버드에서, 미스 반 데어 로에는 1938년 일리노이주 공과대학(IIT)에서 건축학과장을 맡으며 세계 건축계의 흐름을 유럽에서 미국으로 옮겨놓게 되었다. 미국에서의 5년제 건축교육은 1922년 코넬대학에서 시작되어 1940년대 부터는 모든 대학에서

건축학 학사(BA) 자격을 수여하기에 이른다. 이후 1962년 버클리(UC Berkeley)대학과 세인트루이스 워싱턴대학에서 4년제 학사와 2년제 건축학 석사 연계과정을 채용하면서 미국의 건축학 교육은 변화하는 세계에 재빠르게 대응하여 왔다.

2009년 미국내 115개 건축대학에 148개의 건축학 프로그램이 개설되어 있으며, 그중 미국건축학교육인증원(NAAB)으로 부터 인증받은 프로그램은 건축학 학사 프로그램이 53개(36%), 건축학 석사(MA) 프로그램이 94개(64%), 건축학 박사 프로그램이 1개(0.7%)이다.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국외로부터도 풍부한 인력자원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건축학 석사 프로그램이 학사 프로그램 보다 많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와는 분명 다른점이다. 150년에 이르는 미국 건축대학의 역사를 통해 다양한 학제와 교육방법들을 실행하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현재에 이르고 있지만 아직도 미국의 건축학교육은 앞서 언급한 미국건축학교육인증원(NAAB)과 미국건축학교육협회(ACSA)를 중심으로 한층 나은 교육제도와 내용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미국의 건축학 전공은 단과대학인 '건축대학(School of Architecture 또는 College of Architecture)이나 '건축도시대학(School of Architecture and Urban Planning 또는 College of Architecture and Urban Design)'의 규모이다. 제가 답사한 8개 대학 모두 지역의 자연 및 인문환경 그리고 대학의 역사에 따라 포괄적인 건축교육을 기초로 타 대학과 차별화 되는 교육목표를 지향하고 있었다. 건축이 추구하는 기본목표는 예술과 과학기술 그리고 사회문화의 집결체라고 여겨지고 있다. 모든 건축대학들이 이러한 내용을 교육의 목표로 지향하고 있으면서도 여건에 따라 조금씩 차별화 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이 현재 미국의 건축교육이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2002년에 시작된 우리의 건축학교육은 미국제도에 주요근간을 두고는 있지만 현재는 걸음마 단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 생각된다. 하지만 우리의 건축학교육을 국제수준으로 높이고 세계적인 수준의 인재양성이 반응하도록 건축계가 공동 책임을 진다면 이것이 곧 차별화 된 전략이 아닐까 싶다.

지면여건상 8개 건축대학에 대한 내용은 스튜디오전경 사진으로 대체함을 아쉽게 생각한다.

cdass@chosun.ac.kr



미시건 건축대학의 스튜디오 내부



위스콘신-밀워키 건축대학전경



미 중서부 대륙 답사 여정



일리노이주 공과대 건축대학(IT) 건축대학 크라운홀 내의 학부생 설계 크리틱



노들담 건축대학 학부생의 설계 수작업



신신네터 건축대학 실내중정과 복도



세인트루이스 워싱턴 건축대학 복도



콜라라도 건축대학 보울더 캠퍼스 스튜디오



# I. 그리스 건축문화 탐방을 다녀와서

이순미 건축사  
건축사사무소 미가온 대표

1. 그리스-에피다브로스, 미케네, 올림피아

건축사 유럽여행 모임인 오군회에서는 지난 4월 9일부터 19일까지 10박 11일로 지중해 연안의 그리스와 터키의 건축문화 탐방을 다녀왔다. 먼저 그리스의 건축문화를 2회에 걸쳐 소개하고 이어서 터키의 건축문화를 2회에 걸쳐 소개할 예정이다.

## "열심히 일한 우리, 떠나자!"

4월 9일 오군회가 중심이 된 여행 멤버들이 모였다. 지중해 여행은 3년 전부터 계획된 것이다. 학교 수업이 늦게 끝나 지각한 환준이 등을 비롯한 28명의 멤버는 건강한 모습으로 그리스, 터키를 향하여 출발할 수 있었다. 항상 먼 길을 떠나려고 할 때는 남아 있는 가족과 사무실 업무, 주변 사람들과의 연락 등 여러 가지 걱정거리가 꼬리에 꼬리를 물게 마련이지만 이를 과감히 떨치고 떠날 수 있는 용기가 가장 필요한 조건이었다. 그리고 드디어 우리는 "열심히 일한 우리, 떠나자!"를 외칠 수 있게 되었다.

우리 멤버는 터키 행 비행기에 몸을 싣고 이스탄불에 도착한 후 다시 아테네를 향하여 떠났다. 아침 10시경에 도착한 아테네는 출발 전에 걱정했던 소요사태가 야기되지 않아 다행이었다. 우리는 에피다브로스에서 이동하기 위해 버스를 탔다. 한국 가이드에게 그리스의 전반적인 소개(신앙인의 98%가 그리스정교를 신봉함)를 들었는데, 그 중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터키에 대한 그리스인들의 감정이 좋지 않다는 점이었다. 그리스가 터키의 지배를 받았던 역사적 배경에 의한 것으로, 일본의 지배를 받았던 적이 있었던 우리로서는 쉽게 수긍할 수 있는 일이었다.

## 에피다브로스의 원형극장

에피다브로스에는 의술의 신 아스클레피오스(Asklepios) 신전을 비롯한 여러 신전과 1만 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원형극장, 병원, 온천 및 숙박시설 등이 흩어져 있다. 이곳은 1988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다.



에피다브로스의 원형극장



원형극장 관람석 디테일

에피다브로스의 원형극장은 BC 4세기에 건축가 폴리클리트스가 만들었다. 불모의 아산에 지형을 적절히 활용하여 만든 웅장한 모습의 고대극장이다. 반원형으로 배열된 관람석은 가운데 무대와 더욱 가깝게 앉게 되어 있었으며 무엇보다도 음향설계가 잘 되어 있다는 점이 놀라웠다. 무대에서 나는 소리나 관람석의 소리가 서로에게 신기하리만큼 잘 들렸다. 우리는 이 무대에서 즉석 노래자랑을 하면서 음향 상태를 실험해 보았다. 자연석재의 관람석과 주변의 푸른색이 조화로운 훌륭한 건축물이었다. 우리는 이곳에서 마음껏 떠들며 여행의 묘미인 자유를 만끽했다.

## 미케네의 아트레우스 보고(寶庫)

미케네로 이동한 우리는 서양 건축사에서 보았던 미케네의 아트레우스 보고(寶庫)라고 불리는 아트레우스의 궁륭묘(穹窿墓)(1325경 BC, ATREUS THOLOS)를 접했다. 자연 지형을 그대로 활용하여 만들었는데 석재의 높이는 약 60M를 지나면서 점차 높아지는 형태를 취하며, 그 폭은 7M이다. 높이 10M로 끝나는 곳은 직경 16M, 직경높이 14.7M인 벌집모양의 묘실로 미케네 시대에 만들어진 궁륭식 분묘 가운데 가장 대규모이며 보존 상태가 양호했다. 아트레우스 왕의 보고와 궁륭적 양식을 지닌 또 하나의 건축물은 미케네의 사자문(1250BC, Lion Gate of Mycenae)이다.



아트레우스 보고(寶庫)

## 미케네의 사자문(Lion Gate of Mycenae)

BC 15세기경 그리스 본토에 침입한 미케네 인(人)은 미케네에 성새(城塞)를 축조했다. 성새의 상하와 양측에 각 한 개씩의 거석(巨石)으로 주문(主門)을 만들고(높이 3.1m, 너비 2.85m~3.0m), 그 정면의 문楣(門楣) 위에 삼각형의 거석(높이 2.9m, 바닥 길이 3.6m)을 놓았으며, 문 위의 중앙에 있는 기둥을 가운데 끼고, 앞발을 기둥의 기반에 올려놓고 마주 서 있는 한



미케네의 사자문

쌍의 사자가 부조(浮彫)되어 있다. BC 1300년경에 만들어진 것으로 미케네 인의 견고한 성문을 과시한 기념물이다. '학창 시절 서양건축사 시간에 아무리 외워도 잘 외워지지 않던 건축물들인데, 오늘처럼 직접 실물을 보면서 공부했다면 정말 잘 알 수 있지 않았을까?' 라고 동감하면서 이곳에서 첫 번째 단체사진을 찍은 후 올림피아로 이동하였다.

체육 시설 건축물로는 단연 올림피아를 꼽을 수 있다. 올림피아에는 체육 시설뿐만 아니라 제우스 신전을 비롯하여 제우스 제단, 헤라 신전, 펠롭스 신전 등이 있으며 신역의 동쪽에는 경기장이 있다. 예전에는 북쪽에 그리스의 여러 폴리스에서 헌납한 11개의 보물고(寶物庫)가 늘어서 있었으며, 또한 경기 우승자의 기념상·봉헌상(奉獻像) 등이 여러 곳에 세워져 있었고 서



올림픽 경기장 입구



올림피아 경기장

쪽에는 체육관·레슬링장·숙박시설 등의 여러 건축물이 있었다고 한다.

## 남성들의 영원한 로망인 제우스

남성들의 영원한 로망이자 평생 바람을 피워 헤라를 속상하게 한 것으로 유명한 올림포스의 주신 제우스의 신전을 먼저 찾았다. 거대한 돌기둥으로 집적하건대 신들의 제왕다운 위상을 느낄 수 있었다. 우리 중 한 사람이 쓰러진 기둥 위로 올라가니 관리자가 호루라기를 불면서 제제를 하였다. 돌무더기 유물들을 본 지 이틀째가 되자 아이들은 서서히 지치기 시작하였고 열심히 설명을 해도 듣지 않고 딴 짓에 빠지는 일행들이 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유럽 여행에 처음 온 유나는 꼼꼼히 메모까지 하면서 열심히 따라 다녔다. 이번 여행 멤버 중 단연 Best Student였다. 돌 아치로 되어있는 올림픽 경기장 입구를 지나니 고대 올림픽 경기를 하였던 경기장이 한눈에 들어왔다. 비록 지금은 잔디만 남았지만 완만한 언덕을 이용하여 관람석이 배치되었을 것을 짐작할 수 있었는데, 가운데에서 각종 경기가 벌어졌다고 한다. 경기가 벌어질 때는 여자들의 입장이 불가했다고 한다. 왜냐하면 경기의 부정을 막기 위해서 남자들이 옷을 벗고 경기를 치루면서 자신의 몸매 또한 과시했기 때문이다. 이들의 경기가 궁금했던 여인은 언덕 위에서 경기를 틀러 지켜보다가 들킨 후 꼼짝하게도 그 자리에서 아래로 떨어질 죽임을 당하는 사건도 있었다고 한다.

이렇듯 이야기 거리가 많은 올림피아 경기장에서 우리는 달리기 시합을 벌였다. 물론 아이들이 잘 달렸다. 학교와 학원에 갇힌 공부에서 해방된 아이들은 매우 신이 나 있었다.

평생 제우스 때문에 속상했을 헤라를 생각하면서 헤라 신전으로 향했다.

제우스 신전과는 조금 떨어져 있는 위치에 있었으며 규모 또한 제우스 신전보다 작았으나 배치는 동일하였다. 언론을 통해 볼 때 여신 복장을 한 여인들이 올림픽 성화를 점화하는 곳이 바로 이곳 헤라 신전이다. 이곳에서 여신의 포즈로 사진을 찍으려 했으나 멤버들의 배가 고프다는 아우성 때문에 서둘러 나와야만 했다.

(다음호에 계속)

migaon@hanmail.net



헤라 신전



Interview

### '녹색도시 광주'를 목표로 하는 환경녹지국 공원녹지과



박인중 과장  
광주시청 공원녹지과

푸름이 터해가는 5월말, 광주 서구 내방로 광주시청 9층에 위치한 공원녹지과를 방문하였다. 공원녹지과는 환경녹지국 소속으로 광주시의 공원조성 및 관리, 도시녹화와 산림, 수목관리 등 환경녹지분야의 중점부분을 관장하는 부서이다. 이에 공원녹지과 박인중 과장을 만나 본과에서 추진중인 사업에 관하여 인터뷰 하였다.

현재 환경녹지국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을 '공원조성', '공원관리', '도시녹화', '수목관리'로 세분화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조성' 부분은 아시아 다문화 커뮤니티 공원조성, 5.18 역사공원(옛 기무부대부지) 조성사업, 운천저수지 수질개선 및 환경개선사업, 재하수처리장주변 공원화사업, 중외공원내 용봉제 주변공원조성, 광주공원 주변 생태숲 복원, 영산강 대상근린공원 구산지구 조성, 양산저수지 수질개선 및 환경개선사업, 아시아 전통문화 역사공원조성, 운암제3근린공원 조성, 도시공원 시설개선사업 등이 있습니다. 둘째, '공원관리' 부분에는 폐선부지 푸른 길 공원 조성, 중심사 지구 자연환경복원사업조성, 쌍암공원 호수 수질개선과 셋째, '도시녹화' 부분에 녹색학교 숲 조성과 광주학생독립운동 기념탑주변 환경정비, 자산유원지 도시숲 조성, 가로변 녹음 터널숲 조성, 관문로 비탈면 녹화, 1000만 그루 나무심기, 기후변화 대응 벽면녹화, 담장 허물어 나무심기, 교통섬 등 소공간 녹화 등이 있습니다. 끝으로 '수목관리' 부분에는 수목 및 산림서비스팀 조성사업 등 저희 공원녹지과에서는 이와 같은 주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방로 가로수 전경

지난 1월 중, 공원녹지과에서 푸른숲과 아름다운 꽃의 도시 조성을 위한 2010 녹화사업 조기 추진 계획을 수립 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녹음과 꽃이 어우러진 생태도시 조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조기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도심 어디서든 녹음 숲을 만날 수 있도록 녹동마을 등 14개소에 녹음 터널숲을 조성하고, 56로선 670여주의 가로수도 정비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산동교 끝자점 등 13개소에 도심 자투리 공간 환경 개선과 숲을 연결하는 '교통섬 등 소공간 녹화사업', 서석고 등 11개소에 토지매입비를 수반하지 않으면서 생활권 작은 생태공간을 창출하기 위한 '담장 허물어 나무심기사업'을 수립했습니다. 서창~남평간도로 등 11개소 24,190㎡를 대상으로 철쭉류 등을 식재하는 '주요 관문로 비탈면 녹화사업', 칠



금남공원(구 한국은행 터)

성로 등 2개로선에 지면은도 저감 및 도로경관 개선효과 향상을 위한 '가로변 하층부 화단 조성, 서석초교 등 59개소에 담쟁이, 헤데라 등 12만여본을 식재하여 화석 구조물을 생명이 숨쉬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기후변화 대응 벽면 녹화사업', 화정남초등학교 등 4개 학교에 녹색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녹색 학교숲 조성사업' 또한 계획했습니다. 이와 함께 자산유원지 주변 3km에 무등산과 자산유원지를 찾는 이용자에게 녹색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자산유원지주변 도시숲 조성사업', 항일독립운동의식 고취를 위한 '광주학생독립운동 기념탑 주변 환경정비' 등 저희 과에서는 2015년 U대회를 대비한 1등 녹색도시 조성을 목표로 위와 같은 녹화사업 조기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최근 시에서 시립수목원 설계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셨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19일 광주시에서는 남구 양과동 일대에 62ha(622,672㎡) 규모로 조성하는 시립수목원 설계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 했습니다. 오는 2013년까지 저탄소 녹색성장에 부응하는 국제적인 명품수목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남구 양과동과 덕남동, 행암동 일대 사유지 35ha와 국공유지 27ha 등 모두 62ha로 확정하고, 국비와 사비를 포함한 470억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시립수목원 기본설계에 따르면 수목원의 공간 구성은 '환영의 숲', '배움의 숲', '남도의 숲', '자연의 숲', '건강의 숲' 등 5개 숲으로 구성되며, 향후 광역위생매립장 부지를 활용한 미래의 숲을 장기적인 수목원 조성계획으로 세웠습니다.

시립수목원 조성사업은 공원녹지과의 역점사업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시립수목원의 활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추후 조성될 시립수목원은 도심지 인근에 위치하고 광주~목포간 도로에 접해 있어 접근성이 좋습니다. 국내 최대 노인복지시설인 빛고를 노인건강타운과 연계해 '데라피가든', '약초식물원', '허브원', '삼림욕장' 등 보건휴양 및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수목원으로 활용되며, '생태숲'과 '식물원', '산책로' 등을 갖춰 시민들의 휴식과 자연학습장으로도 활용될 것입니다. 또한 시민들에게 혐오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광역위생매립장'을 생태환경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매립장 제방을 정비하고 이용객을 위한 테크 설치와 유희지에 수목식재를 추진하고 향후 장기적인 계획으로 매립이 완료된 이후 저탄소 에너지 지구 미래숲으로 조성해 수목원 시설을 확대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 공원을 조성하고 있는데 현재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광주공원 주변에 '아시아 다문화 커뮤니티공원'을 조성하고 있고, 더불어 광주공원 주변을 생태숲으로 확대 조성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다문화 커뮤니티공원'은 광주천과 연계된 숲으로서 시민에게 사랑을 받게 될 것이며, 현재 주공정을 마치고 마무리 공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약취, 쓰레기 방지 등으로 돌보아지지 않았던 도심내 주요 위치에는 운천, 양산, 용봉저수지 공원화사업은 녹색정책에



대남로(푸른길공원)

부유한 수변 시설로서 한 단계씩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 운천저수지 공정은 약 71%이며, 양산저수지는 50%, 용봉저수지는 20%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공원녹지시책에 있어서 건축인의 역할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이 물이라면 조경은 옷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서로 어우러진 모습에서 자연친화를 도모할 수 있고 보다 더 품격 있고 조화로운 건축물과 주변 공간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도시는 무엇보다도 건축물과 불가분 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에 건축인들의 건물내외부에 대한 생태적 사고와 실천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건물에 옷을 입히는, 옥상녹화, 건물주변 숲 조성, 벽면녹화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여러 사업을 접목하는데 있어 생태전문가, 수목전문가 등과 함께 서로 의견을 교환하면서 보다 더 자연화 된 건물이 건축될 수 있도록 녹색 건축인으로서 그 역할이 매우 큼니다.

새로 만들어지는 모든 건물은 지금보다 더 녹색 옷을 입은 건물이 되었으면 합니다. 건축인 모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사창로 가로수 (조성 후)



윤천로 가로수



## 여수를 사랑하는 건축사! 여수지역 건축사회 회장 조연준

유난히 비가 많이 내리던 지난 5월 18일, 여수지역 건축사가 지역 발전을 위해 불굴의 의지로 건축사로서의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소식에 쏟아지는 빗속을 뚫고 여수 지역으로 향했다. 그는 여수지역 건축사회 회장 조연준 건축사(건축사사무소 창조)로, 그를 만나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건축사가 가져야 할 철학과 책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조연준 건축사  
건축사사무소 창조

2012년 여수에서는 '살아있는 바다 숨 쉬는 연안(The Living Ocean and Coast)'이라는 주제로 세계 박람회가 열린다. 그래서 여수에 대한 관심은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다. 그러나 그 관심의 대상은 대부분 박람회와 직접 관련된 대규모 시설과 SOC(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에 집중되어 있고, 지역적인 특성이나 지역주민들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소소한 이야기들은 큰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여수라는 도시에서 자속되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어우러져 치러질 것인데도 말이다.

물론 세간의 관심과는 상관없이 여수는 지금 세계박람회를 준비하느라 분주하다. 각종 용역사업과 시설사업을 통해 박람회장 조성은 물론이고 도시의 환경과 문화를 정비하는 것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연안선교원 (2007년)

이러한 시기에 여수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건축사를 찾아 일상 속에서 벌어지는 건축행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의도적으로 정돈된 것 보다는 꾸미지 않은 평상적인 모습의 여수를 알고 싶기도 했고, 우리 건축인들은 어떤 생각으로 세계적인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지 알고 싶었기 때문이다.

더불어서 우리지역에서 개최되는 '2012여수세계박람회'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자 한 점도 없지 않다. 그리고 '2012여수세계박람회'에 대한 건축문화적인 접근은 추후 추진상황에 따라 구체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 여수의 홍보대사가 된 심정으로

여수에서 만난 건축인은 '여수지역 건축사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조연준(48) 건축사였다. 김정고시 등 수많은 역경을 이겨낸 조연준 건축사는 현재 '건축사사무소 창조'를 운영하고 있으며, 건설·환경분야의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먼저, 세계박람회 개최를 앞두고 있는 여수의 건축인으로서의 마음가짐을 물었다. 그러자 그는 "한 편으로는 아쉽고, 다른 한 편으로는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말문을 열었다. 대규모의 국제행사인지라 사무소 규모와 업무능력 및 경험 면에서 지역 건축인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고, 그러한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아쉽다고 했다. 그러나 박람회의 기반은 여수라는 도시이기 때문에 도시문화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축사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은 여수의 일상적인 도시문화를 조금이라도 발전시키기 위해 묵묵히 노력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여수를 세계에 알리는 데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 싶어서 스스로를 '여수의 홍보대사'라 생각하며 각오를 다지고 있다고 했다.



벨레교회 투시도(2008년)

### '도전정신'과 '끼로 뭉치진 건축사'

실천방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하자, 평소 가지고 있던 소신을 거침없이 쏟아냈다. 그는 어떤 사물을 보고 지나쳐 버리기 보다는 이리저리 뒤집어 보며 자신만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해 내는 것이 무척 재미있다고 했다. 가끔은 독하다는 말을 들을 만큼 한번 연필을 잡으면 끝을 봐야 작성이 풀린다고도 했다. 그런 그의 '도전'과 '끼'는 "흔이 갖지 않는 건축물은 실패한 것이다", "디자인의 원칙은 무시되어서도 또한 너무 지나쳐서도 곤란하다"라는 소신에서도 엿볼 수 있었다.

또한 그는 천혜의 자연조건을 심본 활용하여 여수를 누구나 마음속에 간직하고 싶어 하는 도시로 만들어 가는 것이 건축사로서의 최대 희망이라고 했다. 그에



건축사사무소 창조 사옥 전경(2006년)

서 작품을 구상할 때면 바다와 섬 그리고 울창한 산봉우리들이 특별한 오브제로 작용한다고 했다. 그러다보니 지역적인 특색이 결여된 자신의 작품을 볼 때면 스스로가 초라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단다. 그런 까닭으로 '시장 논리보다는 예술성 중시'와 '능력에 걸맞은 정당한 보수' 그리고 '디자인 현실화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 등을 형식 영투에 두고 업무에 임한다고 했다.

그는 인터뷰 말미에서 "재능이 출중하다는 말보다는 지독하게 노력하는 건축사로 인정받고 싶다"면서, "여수를 더욱 아름답게 하는 일에 모든 열정을 바치고 싶다"고 했다.

### 여수는 호국충절의 고장, 거북선의 고장

이처럼 그와 인터뷰에서는 여수를 사랑하는 그의 마음이 곳곳에서 묻어나왔다. 그래서 예전에 없는 질문으로 여수를 대표하는 자랑거리를 한 가지만 꼽아달라고 부탁해 보았다. 한참을 고민하던 그는 다도해를 끼고 있는 남해안의 미항이라는 자연적인 조건도 내세울 수 있지만, '호국충절의 고장'이라는 점이 무엇보다도 자랑스럽다고 했다. 특히 임진왜란 당시의 거북선 3척 모두가 충무공 이순신장군에 의해 이곳 여수에서 건조되었기 때문에 '여수는 거북선의 고향'이라고 열변을 토했다. 그 모습을 보니 가히 '여수의 홍보대사'라 해도 부족함이 없어 보였다. 인터뷰가 끝난 후에는 그의 안내로 거북선이 건조되었던 곳 중에 하나인 국가사적 제392호 '여천선소유적'을 돌아보기도 했다.

인터뷰·필리: 박종호 건축사기자  
k21024@chol.com

**SPACE 3**

(주)광주공간 건축사사무소  
조성호

062) 380-7582-8  
팩스 062) 380-7505  
광주광역시 서구 지평동 1278-7 GS빌딩7층

**선텍 건축사사무소**

건축계획, 건축설계, 건축감리

건축사 김근

전화: 062) 512-6900 팩스: 062) 513-3567  
광주광역시 북구 동림동 274-2번지 4층



학교소개는 우수건축인 양성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획하였으며, 먼저 4년제 또는 5년제 대학교의 건축전공을 광주·전남·전북 등 소재지별로 구분한 후 학교명의 한글 순서로 게재한다. 기사내용은 해당 학과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토대로 작성되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학과로 문의하시기 바란다. (편집자 주)

월드클래스 건축공학 교육기관

### 군산대학교 건축공학과

## 균형 잡힌 통합적 건축교육! 자기개발을 통해 행복한 직업인을 키우는 교육!

군산대학교 건축공학과는 1994년 학과가 개설된 후 현재까지 길지 않은 역사 속에서도 교수와 학생 등 학과 구성원의 긴밀한 협력과 역동적인 에너지를 바탕으로 지역 대학의 한계를 뛰어 넘는 풍부한 역량과 내실 있는 성과를 보여 왔다. '월드 클래스 건축공학 교육기관'이라는 경이적인 비전 아래 '건전한 직업인의 기본소양을 바탕으로 가치 있는 건축물을 생산할 수 있는 엔지니어 육성'이라는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금 이 시간에도 군산대학교 건축공학과 구성원들은 흔들림 없이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가고 있다.

### 호남 최초 건축공학인증

인류를 위한 건조 환경 창조 전문 분야로서 건축은 다른 어떤 분야에 비해 통합성이 강한 성격을 갖고 있다. 군산대학교 건축공학 프로그램은 건축이 갖는 이러한 통합적 학문 분야로서의 성격을 온전하게 유지해 오고 있다. 건축교육과 관련된 환경과 제도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도 군산대학교 건축공학과는 장기적인 비전과 현실적인 교육목표의 설정,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와 개선을 통해 '건축학'과 '건축공학' 분야를 포괄하는 정교한 교육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있다.

학과 설립 초기인 2000년 이미 대한교육협회의 건축관련 학문분야 평가에서 교육과정 및 수업 분야가 전국 최우수 7개 대학에 선정된 바 있다. 또한 그 어느 대학보다 먼저 건축공학인증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변화하는 사회와 기업의 요구에 부합하는 건축인을 양성해 왔다. 이를 통해 호남권에서는 최초로 그리고 전국 건축관련 학과 중에서는 7번째로 한국공학교육원(ABEEK)의 인증을 획득하였다.

군산대학교 건축공학 프로그램은 수요자인 학생들의 개성과 재능에 따른 진로설정과 자기개발에 적합한 교육과정, 실무실습 중심의 교육을 특성으로 하고 있다. 학생들의 자존감 형성과 자기개발을 위해 건축공학과에서 지속적으로 실시해온 리더십 향상 프로그램은 이제 군산대학교 전체 신입생을 위한 '비전 있는 대학생 활 설계'라는 필수 교양과목으로 정착되었다.

3학년 여름방학 기간 중 4주에서 8주 동안 기업체의 실무현장에서 실시되는 '건축실무실습'은 학생 대부분이 참여하는 정규 교과목으로서 실무 중심의 군산대학교 건축공학 프로그램의 성격을 잘 나타내는 교과목이다. 또한 4학년에서 Capstone Design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건축설계실무'는 구조, 시공, 환경 및 설비, 설계 등 세부 전공분야 학생들이 함께 팀을 이루어 공동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종합설계 교과목으로서 실무에서 필요한 팀워크와 건축의 통합 학문적 성격을 심어주기 위한 교과목이다.

### 수해양 건축 기술의 특성화

군산대학교 건축공학과는 지난 2004년부터 2009년까지 5년 동안 진행된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NURI)'을 통해 지역의 특성을 살린 '수해양 건축 기술'에 대한 충분한 역량을 축적하여 왔다.

NURI 사업을 통하여 '장애인 주거개선 사업', '새만금 미래환경공원 학생설계 공모전' 등 지역사회와 지자체의 현실적 요구를 해결하는 지역공헌사업을 수행하였으며, 셀 수 없이 많은 학술행사를 통하여 수해양 건축 기술 분야 전문가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였고, 국내외 기술 현황과 향후의 연구 방향을 충분히 체득할 수 있었다. 이러한 NURI 사업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플로팅(floating) 건축 기획연구를 수행하여 또 다른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학생들은 NURI 사업을 통하여 장학금은 물론 다양한 실험 실습 기자재 및 교육 환경 개선의 혜택을 볼 수 있었고, 해외실무실습, 국내외 현장 견학, 해외영어연수, 공모전 참여, 전공 동아리 활성화 등 유무형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다양한 혜택과 지원을 통하여 학생들에게는 다른 무엇보다도 자신을 둘러싼 장애물과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소중한 자신감을 심어주었다. 그 결과 한국교육개발원(KEDI)의 취업률 조사에서 군산대학교 건축공학과는 2008년 96.8%, 2009년 100%라는 전국 100여개 건축공학과 중 상위 1%에 속하는 취업률을 달성하였다.

군산대학교 건축공학과와 잠재된 역량은 정규 교과과정은 물론 전임교원 1인이 최소 1개 이상을 지도하는 전공동아리와 정기적인 학과 행사 등 교과과정 외의 활동을 통하여 더욱 강화되어 가고 있다. 매년 봄학기 초에 실시되는 '건축답사'는 교수와 학생 등 구성원 대부분이 참여하여 서로의 개성과 재능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고 있으며 가을학기 후반에 개최되는 '건축전'에는 졸업작품은 물론 교수 연구활동, 동아리 활동 등이 전시되고, 졸업생들이 참여하여 1년 동안의 성과를 되돌아보는 자리가 되고 있다. 동아리는 '틈(건축설계)', '비전(컴퓨터 활용)', '모·구·동(모형제작과 건축구조)', 'CLC(건설관리)', 'Team Structure(건축구조) 등의 전공분야와 함께 'AST(축구)', '우사이(사진) 등 취미와 관련된 동아리도 활동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군산대학교 건축공학과는 지난 성과를 바탕으로 구성원간의 신뢰와 결집력을 통해 새만금 시대, 지역사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건축인을 키워가고 있다.

국립군산대학교 공과대학 건축공학과  
학과장 : 김용이 교수 solarview@kunsan.ac.kr  
(학과사무실 : 063-469-4781)



건축전 (졸업설계 전시회, 2009년)



종합설계 발표 및 평가 (2009년)



학과 연합답사(2010년)



초청강연회 (2010년)



새만금 내부 개발을 위한 플로팅기술포럼 (2009년)



해의 현장실무실습 (2009년)



교수 워크숍 (2009년)



## 2010년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안당강좌 - '한국 현대건축 60년' \_김석철 명지대 석좌교수



전남대학교 건축학부에서는 지난 6월 1일 공대4호관 코스모스홀에서 '2010년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안당강좌'를 개최했다. 이번 안당강좌에서는 명지대 건축학부 김석철 석좌교수(아키반 건축도시연구원 대표이사)를 초청하여 '한국 현대건축 60년'이란 주제로 강좌를 진행하였다.

김석철 교수는 1966년 서울대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1967년 김수근 건축연구소에 근무하였으며, 1972년 아키반 건축도시연구원 설립, 1988년 예술의 전당 설계, 2002년 명지대 건축대학 학장, 2004년 베네치아 비엔날레 특별상



수상, 2004 제1회 올해의 건축인상 수상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건축인 중 한사람이다.

이날 강좌에서 김석철 교수는 "건축은 그 시대가 각인되는 것이므로 그 시대 정신을 알아야 그 시대의 건축을 알 수 있으며, 역사 의식이 없는 건축은 용도는 있으나 실용이 없다"고 강조하며 "오늘 강연이 젊은 건축학도들에게 큰 의미로 다가 오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대 건축학부에서는故 안당 임영배 교수의 가르침을 오래도록 추념하기 위해 2008년부터 매년 2회 안당강좌를 개설하고 있으며, 각 분야의 유명 학자들을 초청하여 건축분야에 종사하는 대학생 및 건축인들에게 다양한 학문적 소양을 배양할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이수정 학생기자 rozen\_1@naver.com

## '건고 싶은 거리 만들기' 정석 교수 특별강연회 - 6월 22일 오후 2시 전남대 공과대학 2호관 4층



오는 6월 22일 오후 2시 전남대학교 공과대학 2호관 4층 첨단강의실에서 경원대학교 정석 교수를 초청하여 '건고 싶은 도시 만들기'란

주제로 특별강연회를 개최한다.

이는 광주시 주최로 경관취약지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사)도시연구소 시중에서 주관하는 민·관·산·학 거버넌스 개념으로 추진하는 프로젝트이다.

이순미 건축기자 migaori@hanmail.net

## 2010년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국제디자인워크숍 안내

### - Steve King 교수 초빙(호주 New South Wales 대학)

전남대학교 건축학부에서는 아래와 같이 국제디자인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친환경 건축에 대한 대학생들의 교육적 욕구를 충족시켜 줄 것으로 기대된다.

- 과목: 친환경통합건축설계 Integrated Environment-friendly Architectural Design
- 교수: Steve King(건축사, 호주 New South Wales대 교수)

- 일시: 2010년 6월 25일(금) ~ 6월 30일(수)
- 대상: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건축학 전공 재학생 및 휴학생 / 타 대학 재학생 / 외국인 대학생
- 수강료: 50,000원 (추후 조정될 수 있음)
- 수강신청: 전남대 건축학부 사무실 : 062) 530-1630

곽승국 전담기자 ksk830710@hanmail.net

## 조선대 5월 학술세미나, 건축 CEO 특강 개최 - '세계를 디자인 하라' \_정영균 건축사 / (주)희림



조선대 건축학부에서는 지난 5월 28일, 제1공학관 17층 대형세미나실에서 (주)희림 종합건축사사무소 정영균 건축사를 초청하여 특강을 개최했다.

'세계를 디자인 하라'라는 주제로 펼쳐진 이날 강연회에서 정영균 건축사는 특강에 참석한 건축학도들에게 '미래 건축사로서의 준비로 첫째, '비즈니스

마인드'와 둘째, '글로벌 디자인 능력, 셋째, '창의력과 빠른 실천력'을 키워야한다"며 "꿈에 대한 열정과 체계적인 준비로 세계를 디자인하는 건축인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초청 특강에는 광주·전남지역 건축사 및 건축학도와 건축에 관심있는 일반인 10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한편 조선대 건축학부에서는, 지난 5월 12일에도 이진혁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사무국장을 초청하여 '한국건축학교육인증제와 실천과제'라는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

곽승국 전담기자 ksk830710@hanmail.net

## 순천대 건축학부 디자인동아리 DH - 순천시에서 평생학습 우수동아리로 선정



선정하여 지원하고자 마련한 것이다.

순천대 건축학부 '디자인 동아리 DH'는 "건축은 전문가 집단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같이 생각하고 고민하며 만들어 나가야 한다"라는 요지로 평생학습동아리에서 할 수 있는 전시활동 및 교육 등 건축관련 행사를 매년 개최하여 지역민들과 건축으로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2010년 순천시 평생학습 우수동아리에 순천대 건축학부 '디자인 동아리 DH'가 선정됐다.

평생학습 우수동아리는 지역민에게 봉사하고 전시 및 행사, 교육 등 우수 활동을 하는 동아리를 각 지역 기관에서

순천대학교 건축학부 이태현 학생기자 th18@naver.com

## 조용준 조선대 교수 광주시 초청강좌 - '도시를 재편하는 공공체로서 도시디자인'



광주시는 지난 6월 3일 시청 2층 세미나실에서 제3회 도시계획 전문가 초청 목요일강좌를 개최했다.

이날 강좌는 조선대학교 건축학부 조용준 교수를 초청하여 시·구 도시계획 관련 공무원과 엔지니어링 종사자 및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도시를 재편하는

공공체로서 도시디자인'이란 주제로 진행됐다. 조용준 교수는 '도시 매니지먼트로서의 도시디자인과 도시디자인의 실행전략'으로서 도시경관에 대하여 강의했으며, 이를 통해 도시의 성장 과정과 창조도시 전환을 위한 새로운 도시사조를 도시디자인과 이를 실현하는 전략으로서 도시경관을 제시했다.

한편 광주시는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도시계획 전문가초청 강좌를 열고 도시계획과 건축, 교통, 환경,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수준 높은 강좌를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고 있다.

곽승국 전담기자 ksk830710@hanmail.net



### (주)건축사사무소 영일.필

분쟁은 공정한 평가와 대화로 해결된다.



#### 건축사 정태호

- 25년 공사원가분석
- 15년 법원 공사비 감정 위원

광주시 북구 중흥동 694-10 (건축사 회관내 2층)  
TEL:(062)521-8044 HP:010-3602-3378

공사비 감정 / 기성고 감정 / 유익비 감정 / 공사비 평가



### 제16차 전국여성건축사대회를 다녀와서 - 'CITY OF GREEN 남산과 한강사이에서 만나다'



국악 공연장인 남산국악당은 전통민가 보다 한 단계 높은 공공 건축형식을 도입하였고, 대지의 흐름을 따라 위계별 건물의 지붕이 중첩되는 스카이라인을 형성하였다.

Marina JEFFE 앞 플로팅아일랜드(제1섬: Island Vista 만개한 꽃, 제2섬: Island Viva 꽃 봉우리, 제3섬: Island Terra 씨앗의 배의 일종으로 공정을 30% 정도 인데 완공 후 한강변에 정착할 예정이며 흥수 시 대비책과 First Floor Plan 기준점이 난점이라고 하였다.

지난 5월 13일, 14일 대한여성건축사회가 주최하는 제16차 전국여성건축사대회가 'CITY OF GREEN 남산과 한강 사이에서 만나다'라는 주제로 한강변 수상건축물 Marina JEFFE에서 열렸다.

황정복 대한여성건축사회 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최영집 대한건축사회 회장의 격려사와 이덕수 서울특별시 부시장의 환영사, 남경필, 김진애, 조정식 국회의원의 축사 등에서 여성건축인의 질을 높여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으로 역할을 발휘하고, 또한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독려했다.

한편, 경기도내 각시별 건축사회 회장단과 시공회사 대표, 공무원 등 많은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불우이웃돕기 후원금을 서울 청암 노인요양원 정미영 원장에게 전달하였다.

총회에 이어 (주)간삼 건축 상임고문인 원정수, 지순 건축사의 워크숍 '부부 건축사가 함께 한 건축의길 50년'에서는 직접 설계에 참여한 각종 건축 작품들의 설계 주안점 및 에피소드를 회고하였고, 자연과 함께하는 친환경건축물과 인간본연의 설계방향을 제시하여 여성건축사들의 멘토이자 롤모델이 되었다.

견학지로 서울의 중심이자 상징이며 가장 높은 곳에 새롭게 단장한 N 서울 TOWER 디지털전망대, 전망엘리베이터, 하늘 화상실, 루프 테라스 등은 남산의 살아있는 자연과 함께 서울시민의 휴식공간이자 외국인의 관광명소로 손색이 없었다.

남산골 한옥마을에 자리한 전국 최초

랜드(제1섬: Island Vista 만개한 꽃, 제2섬: Island Viva 꽃 봉우리, 제3섬: Island Terra 씨앗의 배의 일종으로 공정을 30% 정도 인데 완공 후 한강변에 정착할 예정이며 흥수 시 대비책과 First Floor Plan 기준점이 난점이라고 하였다.

유람선으로 건너간 독석 한강 공원화 사업 전망복합문화시설은 일명 자벌레(J자형)형태로, 복합문화시설을 지하철 연결통로까지 연장하여 각종 예술품 및 공예품을 전시하여 시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였으나 곳곳에 서있는 교각들이 많은 아쉬움을 남게 하였다.

국제 지명 초청 현상설계에서 당선된 자하 하디드가 설계한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은 '환유의 풍경'이라는 컨셉으로 한강의 흐름을 연상시킨 건축물과 공원을 통해 유연성을 추구하였고, 한국적 전통과 끝없이 변모하는 디자인의 미래를 하나로 통합하였다고 한다.

말살된 동대문 운동장의 성벽과 이간수문을 발굴 복원하였고 역사적으로 중요한 각종 유물이 출토되어 전시되었으며, 디자인 서울에 걸맞은 이벤트 홀 및 디자인 갤러리는 세계 디자인 허브로, 랜드마크로, 경제부활의 중심지로 서울의 자량이 될 것 같다.

보고, 듣고, 배우고, 느낀점이 너무 많았던 이번 대회는 정체성 고민에서 잠시나마 일탈이 되는 계기가 된 것 같고, 가족과 함께 다시금 견학하고픈 장소로 서울 투어를 추천하고 싶다.

박신남 건축사기자 psn0188@hanmail.net

### 광주시, '아름다운 문화도시 공간상' 공모

광주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7월 15일 까지 '아름다운 문화도시 공간상' 작품을 아래와 같이 공모한다.

- 접수기간: 2010년 7월 1일 ~ 7월 15일 18:00까지
- 공모분야: 광주광역시 소재의 대상물로 아름다운 도시문화 경관에 기여한 공개공지, 담장, 가로공원 및 쌈지공원, 옥상녹화, 야간경관 등
- 참가자격: 제한없음
- 제출내용: A3규격에 위치, 작품설명서, 현장사진 등으로 임의 제작
- 제출방법: 직접 또는 우편(마감일

- 접수시간까지 도착분 유예) 제출
- 제출장소: 502-827 광주광역시 서구 목련길 11번지(치명동 1208) 골든빌 304호 나무심는 건축인
- 시상분야: 3점 이내
- 시상내용
  - 당선된 시설물 소유자(또는 단체): 광주광역시장상 수여
  - 당선된 시설물: 기념동백 부착
- 문의처: 시 도시디자인과 (☎062-613-4881) 나무심는 건축인 (☎062-376-4550)

### 광주시, '인본디자인 전문가 워크숍' 개최 - 건축 전문가 등 관련분야 전문가 발표 및 토론



광주광역시에서는 지난 5월 25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인본디자인도시' 선포 1주년을 맞아 '인본디자인 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디자인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제1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총감독 이순중 서울대 교수와 경

기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이영범 교수의 주제발표가 진행되었으며, 전남대 건축학부 천득영 교수, 전남대 조경학과 조동범 교수, 동신대 문화건축학부 송승광 교수 등 도시디자인분야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토론이 이뤄졌다.

이순중 교수는 '인본디자인도시 광주의 발전디자인방향'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이영범 교수는 '인본디자인이 다뤄야 할 가치, 인본디자인이 만드는 도시를 주제로 발표하여 광주시가 인본디자인 도시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디자인정책과 향후 단계별 추진계획 등 미래도시 디자인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 '아름다운 경관만들기' 강병근 교수 특별강연회



연회를 가졌다.

이는 광주시,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가 주최이며 (사)한국건축가협회 광주지회 공공봉사위원회에서 주관이 되어 하는 '장애없는 세상만들기의 프로그램'으로 올해로 4년째를 맞고 있다.

특별강연회를 통해 강병근 교수는 "아름다운 경관 만들기의 가장 중요한 점은 자연과의 공생(共生)을 통해 아름다운 마을경관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디자인 코드(design code)의 부재(不在)가 아름다움을 소멸시킨다"고 말했다. 또한 "이는 아름답게 가꾸어진 자연경관을 만들고 이 자연경관을 연결하여 마을경관을 만들어서 생태계의 먹이 사슬을 이어주면 지속가능한 시간을 연결한 '주어진 것'과 '만들어진 것'이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마을'을 만들 수 있다"고 했다.

이순미 건축사기자 migaon@hanmail.net

## 법무법인 서석

**광주건축사회 고문변호사 윤 춘 주**  
법무법인 서석 변호사

새로운 일을 추진할 때와 문서에서 서명하기 전에 변호사와의 전화 화 통화로 많은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취급업무 •  
공증, 특허, 상표, 건설, 의료, 행정, 파산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5-2 범조타운 206호  
전화: 062-226-7400 팩스: 062-225-5310  
홈페이지: nicelawyer.co.kr/윤변호사.com

건축문화 **사랑** 2009년 11월 10일 창간

발행처: 광주광역시건축사회  
발행인: 신정철 전남회장 김강수 전북회장 이성범  
편집인: 박홍근  
전담기자: 박승국  
편집위원: 이순미, 서재형, 정태호, 신영은, 박신남, 정명환, 장성호, 송명옥, 김기범, 정영범, 정관성, 박종호

등록번호: 광주광역시 라00144  
간벌: 월간  
등록일자: 2010-01-25  
인쇄·제작: 삼화문화사 T.062)222-6660  
광고신청: T.062)521-0025

• 취/지/설/명

건축문화 사랑과 함께 찾아 떠나는 목표의 근대화유산

우리의 문화유산을 바로 알고 전통과 역사의 발자취를 살피고 보존하며 계승해 나가는 의미로 함께 찾아 떠날 수 있는 목포지역의 근대문화유산의 위치를 이미지화 된 지도에 표현하였다.

건축문화 **사랑** 신문 발전기금을 모집합니다!

▶ 발전기금: 1만원부터  
▶ 후원방식: 신한 131-009-471898 (예금주: 광주건축사회)

김정일 (주)이에스엔지니어링	50만원
김남준 남강원토세리믹	50만원
이창진 건축사사무소 마당건축	30만원
위태준 (주)기다A&C	30만원
윤철영 (주)건축사사무소 휴먼앤스페이스	30만원
강현구 조형 건축사사무소(주)	30만원

건축문화 **사랑** 원고모집

건축문화사랑에 게재할 원고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독자사진/지역소식/동호회소식/책/수상/수필/작품노트/건축작품/독자만평/기타 (기행문, 시, 문학작품, 미담, 학위 취득, 교수 임용, 인사이동 등 회원동정)

원고마감: 매달 25일  
문 의: 광주건축사회 (Tel: 062-521-0025)  
E-mail: gjk@empal.com

1. 건축작품 및 기타를 제외한 모든 원고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
2. 원고에는 작가의 사진과 사무소명, 직책 및 약력을 첨부.
3. 원고는 아래 한글, 명조체, 10포인트로 작성, 사진은 디지털파일로 제출.



### 광주건축사회, 전국 건축사 축구대회 '우승'

- 최우수선수상에 심상봉 광주건축사 축구동호회 회장



지난 5월 14일, 15일 양일간 대구강변 축구장에서 열린 제6회 대한건축사협회 장기 전국 건축사 축구대회에서 광주건축사 축구동호회가 '우승'을 차지했다. 대한건축사협회가 주최하고 대구광역시건축사회와 대구건축사 축구동호회가 주관하여 전국 시 도 400여명 20개 팀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이번 대회에서 광주건축사 축구동호회는, 예선에서 3승 1무로 4강전에 올라 강남을 제압하고 결승에 진출했다. 광주 팀은 예선에서 4

전 승으로 4강에 올라 부산갈매기 팀을 제압하고 결승에 진출한 막강 충북 팀을 맞아, 승부차기까지 가는 접전 끝에 3대 1로 이겨 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전국대회를 포함하여 3번의 우승을 차지하는 위업 또한 이뤄냈다. 준우승은 충북 팀이 차지했으며, 3위는 부산갈매기 팀을 2대 1로 꺾은 강남 팀이 차지했다.

이와 함께 개인 시상 부분에서 광주건축사 축구동호회 회장인 심상봉 건축사가 최우수선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으며, 최다득점상은 충북건축사 축구동호회 이재삼 건축사가 차지했다.

한편 대한건축사축구연맹회는 "6월 19일 제5회 한·중·일 축구대회가 중국 상해에서 열리며, 차기 건축사 축구대회 또한 9월, 서울 송파건축사 축구동호회에서 개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 '중국 강소성 감찰설계협회', 전북건축사회 방문

- 루쑹치양 단장 "문화·역사 계승하려는 노력 인상적"



지난 1994년 전라북도과 강소성이 자매결연을 맺은 이후 문화, 사회, 인적 교류 등 많은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이 이어져 왔으며, 2009년 전북건축사회와 강소성 감찰설계협회는 '우호교류 의향서'를 체결하고 양 단체간 상호이해와 협력을 통해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건축문화 교류활성화를 위해 전북을 방문한 강소성 감찰설계협회 루쑹치양(盧中強) 교류단장은 한국의 현대건축과 전통건축에 대하여 "전통과 역사가 전승된 건축문화에 감탄하였다" 며 "다나무

로 한지를 만드는 등 전통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인상적이었다"고 말하고, "강소성을 비롯한 중국은 빠른 속도로 개발이 이뤄지면서 건축형식도 급격히 변하고 있으나 문화를 포함해 개발과 보존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강소성의 건축설계는 일본, 유럽 등과 소통하는데 한국 건축인들과 창의성 면에서 상호교류 보완하면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며 교류회의 의제로 제안한 '건축사협회 창립45주년 기념 전시회에 강소성 회원들의 작품전시'등 양 단체간 교류증진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고, 강소성 감찰설계협회 방문단 회원들이 준비해온 설계 작품집 등 기념품을 교환했다.

방문단 13인은 5월 26일~28일 전주 한옥마을, 새만금사업지구, 대우자동차, 전주월드컵경기장, LH전북본부사옥, 효자지구 공동주택단지, 금산사 등을 견학하였다.

김기복 건축사기자 vivo@kira.or.kr

### 건축문화사랑 주최로 첫 강연회 열려

- 조선대 장동국 교수 자청으로 첫 발



조선대학교 건축학부 장동국 교수가 지난 5월 27일, 광주건축사회 5층 강당에서 특별강연회를 열었다.

이날 장동국 교수는 광주, 전남, 전북 지역 교수와 건축사, 관계 공무원, 학생 등 수십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국의 건축대학과 현대 건축물'이란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장 교수는 지난 2009년부터 1년간 미국 미시간대학에 교환교수로써 체류하며 방문했던 미국의 8개 건축대학의 특성과 시설, 16박 17일 동안 미국 북서부 대륙을 횡단하며 답사했던 도시와 대표적인 현대건축물에 대해 소개하며, "시간의 흐름이 더해감에 따라 더욱 그 깊어지를 더해가는 건축의 창조 또한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현실이다"며 '이 시대가 건축인에게 요구하는 역할'에 대해 강조했다.

한편 장 교수는 한국인으로서 처음으로 올해 2월, 미국 미시간 건축대학 부설 갤러리2106에서 'Space Explorers'라는 주제로 건축 전시회를 개최한 바 있다.

### 2010년 전라북도 건축유관기관 체육대회 개최



전라북도 내 건축인들의 소통과 축제의 장으로 전주시 건축사회가 주최하는 제3회 전라북도 건축유관기관 체육대회가 완주군 문화체육센터 천연잔디구장에서 개최된다.

전북도청팀 외 5개 기관 220명이 참여하여 축구 배구 단체출범기 레크리에이

션 등 다양한 운동경기를 통해 서로의 화합을 다지고 평소 바쁜업무 때문에 함께할 자리가 부족하던 이번 체육대회가 전북 건축인들의 뜨거운 열정을 하나로 모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일 시 : 2010년 6월 19일(토) 09:30~17:00
- 장 소 : 완주군 문화체육센터 (천연잔디구장)
- 주 최 : 전주시 건축사회
- 참가팀 : 전주시건축사회/ 전북도청 디자인정책과/ 전주시주택과/ 김제시청/ 완주군청/ 전북도교육청/

### '건축문화사랑 탐방' 시범적 개최

- 건축문화사랑 주최로 7월 3일에 첫 시도

건축문화사랑에서는 건축문화에 대한 이해와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강연회와 '건축탐방'의 정례화를 기획하고 있다. 강연회는 지난 5월 27일에 첫 테이프를 끊었고, 오는 7월 3일에는 건축탐방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건축문화사랑이 창간된 지 채 1년도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이 지역 건축문화를 선도하고자 하는 열의 때문에 마냥 미루고 있을 수만은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작이 반'이라는 말을 믿으며 건축탐방에 첫 발을 내딛게 되었으며, 많은 시행착오가 예상되는 관계로 이번에는 건축문화사랑 편집위원, 기자 및

학생기자 등을 대상으로 계획하였다. 이러한 시범행사를 통해 제반 문제점을 보완함으로써 향후에는 많은 건축인과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기틀을 잡아가기 위함이다.

아울러 건축문화사랑이 주최하는 강연회도 건축문화에 대한 정보공유와 소통의 장으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한다.

앞으로 '건축문화사랑 강연회'와 '건축문화사랑 탐방'이 독자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기대한다.

건축문화사랑 편집인 박종근 건축사 foryoua@hanafos.com

### 2010년 순천·여수지역 한마음 체육대회



2010년 순천·여수지역 건축사 및 직원 한마음 체육대회가 지난 5월 28일 순천시 상사면 상사수자원공사 운동장에서 개최됐다.

건축사 및 사무소직원 등 총 208명이 참석한 가운데, 축구와 피구, 600m 계주 등 다채로운 종목이 진행되어 순천·여수지역 건축사 및 직원의 마음을 한마음으로 묶는 자리가 되었다.

### 광주 건축계 동정

**\*입회**  
- 조연수 건축사, (주)현대 건축사사무소 / 광주 북구 신안동

**\*변경 (소재지 변경)**  
- 이영문 건축사, 이영 건축사사무소 / 광주 동구 수기동 21-3 고운하이츠 2F 202호  
- 오세철 건축사, 한울 종합건축사사무소 / 광주 북구 신안동 134-7 제일오피스텔 514호

**\*변경 (사무소명, 소재지 변경)**  
- 강성철 건축사  
상강 건축사사무소 → 디자인그룹 현대 건축사사무소 / 광주 북구 신안동 133-2 2층

### 전북 건축계 동정

**\*입회**  
- 홍지숙 건축사, 홍지 건축사사무소 /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770-4번지

**\*폐업**  
- 서경숙 건축사 / 수목 건축사사무소

**\*변경 (소재지 변경)**  
- 박형재 건축사, 해원 건축사사무소 /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2가 598-2  
- 김정수 건축사, 두리 건축사사무소 /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2가 598-2

### 전남 건축계 동정

**\*입회**  
- 천준필 건축사, 유토 건축사사무소 / 전남 목포시 상동 967 (2F)  
- 윤연탁 건축사, 건축사사무소 모던아트 / 전남 함평군 함평읍 기라리 819-1번지

**\*변경 (사무소명, 소재지 변경)**  
- 김미영 건축사  
(주)원우기술개발 건축사사무소 / 전남 화순군 화순읍 훈리 12-6번지

**\*결혼**  
- 정원석 건축사  
연일 건축사사무소 / 본인결혼 - 5월 15일(토)  
- 노상익 건축사  
전일 건축사사무소 / 장녀 - 5월 22일(토)

**\*변경 (상호)**  
- 정희진 건축사, 지디 건축사사무소 → 힘찬 건축사사무소

**\*부고**  
- 허 방 건축사, 방 건축사사무소 / 부친상 - 5월 10일(월)  
- 김재욱 건축사, 유진 건축사사무소 / 부친상 - 5월 29일(토)

**\*기타**  
- 송경규 건축사, 종합건축사사무소 세림(주) / 황실문화재단 이사장 취임



수필

### 꽃들은 어디로 갔을까

강선영  
경기도 남양주시

나이가 들어보니 알겠다. 늙는 것은 서럽기에 앞서 몹시도 불편한 현상이라는 사실을. 어느 날 문득 예고도 없이 찾아온 이 불편한 손님에 마치 오래 전 내게 장기 임대라도 내어 놓고 어디론가 멀리 떠났던 내 몸의 주인인 양 기척도 없이 불쑥 찾아들더니 당당하게 자리를 잡고 이런저런 뒷세를 부려댄다. 처음에는 눈이 침침하기 시작하더니 그다음에는 허리가 고장 나고, 이로 말미암아 다리가 불편해지고, 마침내 통증이 관절을 타고 돌아다니며 그동안 내게 맡기고 떠났던 집을 열어나 잘 관리하며 살았는지 꼼꼼하게 시찰하는 검열관처럼 엄격하게 지나간 나의 삶을 평가하고 있다.

몸이 아파 보니 비로소 알겠다. 내 몸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시간이었다는 사실을. 그동안 나는 시간의 주인이 내어준 어느 육신의 집에서 거의 관리비만 부담하는 조건으로 거주해 온 것이었다. 남의 집이라도 내 집처럼 평소대로 구석구석 알뜰하게 가꾸고 돌보았으면 좀 더 오래 쾌적한 삶을 누릴 수도 있었을 것을, 내 집인 줄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도 유지 보수에는 무심한 채 오로지 들고 나는 용도로만 사용했으니 어쩌면 남들보다 다소 일찍 찾아든 노화의 증세는 지금까지 내게 주어진 육신의 몸을 가꾸지 않고 무심하게 살았던 과오를 스스로 입증해 보이는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르겠다.

내 몸이 나의 것이 아니라 시간의 주인에게 분양받은 시한부 임대주택이라는 사실은 다소 냉정한 현실로 남았다. 언제 쫓겨날 지도 모르는 유한한 생의 보금자리에서 시간의 주인이 대리인으로 보낸 노화 및 그가 동반한 통증과 남은 평생을 동거해야 한다는 진단이 내려진 것이다. 의학적인 치료법으로 병증을 완화시키

라도 원상복구는 불가능한 것이므로 어느 정도의 통증은 감수하며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다.

세계적인 기상이변 현상의 일환이라던가, 올해는 유난히도 봄이 변덕스러웠다. 심술궂은 한파가 몰아치던 이상한 봄날, 늦은 밤까지 지인들과 함께 대학로에 있었다. 그런데 누군가 내게 길가 대형 화분에 갇힌 꽃들을 가리키며 그 이름을 물었다. 대학로의 매개한 공기 속에서 파리하게 떨고 있는 그 꽃들을 바라보는 순간 난생 처음 느끼는 당혹감이 몰려왔다. 꽃은 꽃이로되 너는 더 이상 꽃이 아니로구나. 내 몸이 나의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처음 깨달았을 때처럼, 그 꽃도 더 이상 꽃이 아닌 것으로 내게 다가왔다. 스스로 피어나는 사랑스러움, 그리하여 절절로 시선을 부르는 유혹, 그것이 꽃의 본질이다. 그러나 도시의 구색을 맞추기 위해 화려한 색깔로 배열된 그것들은 더 이상 꽃이 아니었다. 하나의 장식물로 조작된 안타까운 존재일 뿐.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불현듯 노여움이 일었다. 누가 이렇게 꽃을 모욕하는가. 버려진 꽃보다 더 가엾은 것이 조작된 꽃이다. 자동차 매연으로 가득한 도로를 빛내기 위해서 숨막히게 밀집해 있는 꽃들이 저마다의 고통을 뿜어내었다. 통증으로 아우성치는 꽃밭이 내 몸으로 스며들어 온몸에서 육신거리기 시작했다. 억눌린 꽃의 자유가 내 몸에서 통증으로 피어났다. 내 몸에 각인된 꽃들이 내게 통증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를 알려주었다. 그것은 네가 아직 살아 있다는 증거야. 통증이 사라지는 날, 시간의 주인은 네게서 단호하게 육신의 집을 회수해 갈 것이니, 그때까지 마음껏 즐겨야 한다고 꽃들이 내게 은밀히 속삭였다.

### 건축 · 건축가

"건축은 동결된 음악"이라고 음악과 건축을 하나로 보며 찬란한 정의를 내린분은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쓴 괴테였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건축이 있지만 "침묵의 건축" 이야기하는 건축 노래하는 건축이 있다고 불란서 시인 빌레리는 노래했습니다.

"위대한 건축가는 위대한 시인"이어야 한다며 시인과 건축가를 동일선상에 놓고 태양과 대지연을 건축에 유입시키면서 유기적 건축을 제창한 분은 공간의 거장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였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꽃들이 있지만 모두가 장미꽃일 수는 없다"며 장식을 배제하고 절제된 균제의 아름다움을 추구한 이는 구조의 거장 미스 반 데르 로에였습니다.

"위대한 건축가란 생명이 없는 돌덩이에 영혼을 불어넣어 빛 속에 극적인 드라마를 연출시켜야 한다"고 말한 분은 휴머니즘의 건축가이며 형태의 거장인 르코르뷔제였습니다.

"직선은 악마의 선이요 곡선은 신의 선"이라며 오랜 세월을 화려한 장식과 곡선으로 사그라다 패밀리아 성당을 자상에 세운 사람은 안토니오 가우디였습니다.

"여자와 건물은 부드러워야 한다"고 호기어린 눈빛으로 술잔을 높이 들며 통나무집을 그리워하던 사람은 내 친구 P교수였습니다.

#### Profile



權峯 유응교

전남 구례 운조루(雲鳥樓)에서 출생  
現 전북대 건축학과 명예교수

#### 〈詩集〉

「그리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가슴이 따뜻한 사람」  
「잠들지 않는 그리움」 「아름다운 마음 아름다운 세상」 외 다수  
ryu6833@hanmail.net  
http://blog.daum.net/ryumind, http://unjoru.com

특/별/기/고

### "여름철 민박 · 펜션 등 숙박시설 특별소방안전점검을..."

김정훈  
보성소방서 근무  
동신대 소방행정학과 겸임교수



소방방재청은 최근 '화재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일선 소방서에서 대대적으로 화재저감대책을 발표하는 등 방안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특히 전라남도에서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올해 들어 조리로 운영하고 있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를 위반한 행위를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절한 포상을 한다. 이로써 주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한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민박 · 펜션 등 숙박시설 등에 대하여 사전 예방활동이 더욱 요구된다.

주 5일 근무제 및 문화생활의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른 물놀이 · 레저 활동 증가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별히 소방차 진입이 곤란하거나 자연성 조립식건물 등 화재 시 위험요인이 상존하

고 있다. 더욱이 휴대용 가스렌지 등의 부주의한 사용으로 인한 폭발사고가 우려되는 여름 피서철이다.

실제로 2008도에 전국 숙박시설 화재로는 346건이 발생하였고 가스누출이나 부주의로 발생한 것이 102건이나 된다.

2004년 7월 23일 포천민박집 화재는 서울의 어느 교회 성경학교에서 캠프를 나와 휴대용 가스렌지 등의 부주의한 사용으로 화재가 발생하여 1명이 사망하고, 34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2005년 2월 3일 가평 펜션화재는 전기 과부하로 샌드위치판넬조 2개동이 전소되어 5,0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

민박 · 펜션 등 숙박시설은 최소한의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형 화재경보기를 구비하여, 유사시를 대비한 안전에 더욱 힘써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

여름 휴가철 동안이나마 화재보험을 가입하여 화재위험성이 높은 다중이용업소의 자력배상능력 확보는 물론 안전관리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는 국민의 성숙된 안전문화를 구현하여야 할 것이다.

건축사 Gallery



어제처럼

나는 오늘 그리고 내일을 기대하지만  
지나고 나면  
어제처럼만 되어도  
좋았음을 느낀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어제처럼 늘 싱그러움을 잃지 않고  
살아가기를 기대하며  
혹시나~ 한다.

그림: 김주연 건축사

Photo



파묵칼레(Pamukkale)

로마의 고대도시 히에라폴리스(Hierapolis)의 성채(城塞)를 둘러 본 후 석양녘에 마주한 신비의 파묵칼레(Pamukkale). 석회수 온천이 흐르며 솟을 문처럼 놓은 듯 빛어낸 거대한 경관에 노을이 지고 있다. 그 너머의 넓은 평원에는 그 옛날 로마군의 함성이 들려 오는 듯 하다.

(2010. 4. 14 촬영)  
이재현 前 한국농어촌공사 람평 이사장



우리의 대표브랜드-삼성

무등의 비로와  
1등으로  
세계를  
이끌어!

알고 계셨나요?

## 삼성 시스템에어컨(천정형)은 우리고장 광주삼성전자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삼성광주전자주식회사는 1989년 광주 하남산업단지에 설립된 광주지역 독립법인입니다. 2조원 규모의 호남제일기업으로써 고용인력증대 및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고있으며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기업이 되기 위해 장애인 지원 등 다양한 사회복지활동 및 광주광역시로부터 환경친화 기업으로 선정된 삼성광주전자는 인간의 생명과 자연을 보호 한다는 신념아래 전사녹색경영을 통한 자연과 환경보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 하남산업단지 내 삼성광주전자

저렴한 유지비+인테리어까지 생각한 1:1 맞춤바람은  
오직 **내고장 광주기업 삼성 시스템에어컨(천정형)** 뿐입니다.



### 우리지역 삼성 시스템에어컨(천정형) 전문점

(유)삼성무동특판 062)365-6900	(유)에이원공조시스템 062)681-8504	순천 동아이앤에스(주) 061)722-0850	전남지역 나주 (주)하이옥스 061)336-0071~2
(주)센도리 062)268-5811	(주)오성에어텍 062)971-7742	순천 티에이엔스(주) 061)721-4798	전주 디지털공조 063)277-7999
광주지역 (주)한국엠이씨 062)521-2341~2	(주)삼성공조시스템 062)952-0048	전남지역 여수 삼성냉열시스템(주) 061)653-2025	전주 (유)삼성에스에이비공조 063)226-0419
(주)에이엔비 062)603-4787	그린공조시스템 062)385-7300	광양 (주)디에스시스템 061)795-6631	전북지역 전주 (유)일신공영 063)212-9131
(유)하우엔공조시스템 062)511-0006		목포 (주)한빛시스템 061)247-9500	전주 (유)정연엔지니어링 063)244-7777
			군산 (유)삼성특판공조 063)451-7800
			익산 (유)한국설비 063)832-7152
			익산 두일공조시스템(주) 063)841-5800
			익산 삼성동성에어컨(주) 063)855-8700





품질경영시스템 ISO9001 획득  
기술혁신 중소기업 (INNO-BIZ) 인증  
벤처기업 등록

www.bs-base.co.kr

# 탄탄하고 경제적인 기초공사 - 반석기초이앤씨(주)가 만들어드리겠습니다

## 팽이기초공법 (6연식형 / 현장타설형)

팽이기초공법  
6연식



동신고 체육관

팽이기초공법  
현장타설형



잠신 중학교



군산인력개발원



전남대 학군단



105 포병대대



서정동 주민센터

## 마이크로파일 공법



장성 문화예술회관



연천초

## 그라우팅 공법



**반석기초이앤씨(주)** 대표이사 문형록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487-1 아이비타워 108호 TEL. 031)577-1673 FAX. 031) 577-1674